

아
름
다
운

제
휴



Giving Korea 2002

기
업
과

N
G
O
간
의

파
트
너
십
을

통
한

사
회
공
헌
활
동

한국인의 자선적 기부와 자원봉사: 2001년 서베이 조사 결과분석

황창순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름다운재단 정책자문교수)

1. 머리말

한국인의 자선적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태도, 그리고 행동에 대한 실증적 자료는 그동안 몇몇 기관이나 학자들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보고되었으나(강철희 1998; 김준기 2000; 정무성 2000) 우리나라 전체 성인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서베이 조사의 결과는 제대로 보고된 것이 거의 없었다. 2000년 여름 아름다운재단이 미국의 지역사회재단을 모델로 출범한 이후 한국인의 기부 및 자원봉사 행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통계 자료의 필요성을 깊이 깨달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한국인의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한 전국적인 서베이 조사(National Survey on Giving and Volunteering in Korea)」를 실시하게 되었다.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한 서베이 조사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과학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가 축적되어 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비영리조직에 대한 연구가 여러 측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연구과제의 하나는 비영리조직을 위해 동원될 수 있는 민간자원, 즉 자선적 기부금과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신뢰할 만한 양적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다. 본 조사는 이러한 전 세계적인 추세에 발 맞추어 2001년에 이어 올해 2002년에도 한국인의 기부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를 조사하였다.¹⁾ 또한 기부와 자원봉사 행동에 연관성이 있는 다양한 변수에 대해 동시대 한국 성인들의 태도와 인식을 조사하였고, 기부와 자원봉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조건과 배경적 요인을 탐색하였다.

2. 기부조사에 관한 선진 외국의 경향

한국의 기부와 자원봉사에 관한 서베이 조사의 방법과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검토의 과정으로서

1) 기부에 관한 서베이 조사에서는 실제 조사하는 연도와 기부행위가 일어난 조사대상 연도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사에서는 직전 연도의 자선활동을 연구대상자의 회상이나 기억에 의존하게 된다. 올해 조사연구의 대상연도(target year)는 2001년이며 서베이를 실시한 연도는 2002년이다. 본문에서는 대상연도와 조사실시 연도가 적절하게 구분되어 사용될 것이다.

올해도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의 기부지수 조사 체계를 검토하였다. 외국 선행연구의 검토는 우리나라에서 서베이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질문 문항과 표본의 선정, 그리고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사도구의 개발 및 조사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우리나라 서베이 조사의 문제점과 제한점에 대해서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 절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선진 외국의 사례 가운데 자선적 기부가 가장 활발하고 기부의 규모도 가장 큰 미국과 자선적 기부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나라의 하나인 영국을 분석대상으로 삼아서 자선적 기부금과 자원봉사활동의 서베이에 관련된 주요 쟁점을 검토해서 우리나라의 기부지수를 조사 연구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

(1) 미국의 기부와 자원봉사조사

미국의 경우 자선적 기부금의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기부에 관한 통계는 AAFRC(American Association of Fund-Raising Counsel)에서 발행하는 Giving USA 자료이다. 기부와 자선에 관한 또 다른 통계 자료는 미국의 Urban Institute에 소속되어 있는 비영리와 자선 연구센터(Center on Nonprofits and Philanthropy)의 하나의 부속 프로그램이 되고 있는 국립자선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Charitable Statistics, NCCS)에서 발간하는 자료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 두 가지 통계자료 이외에도 자선적 기부금이나 민간자원의 흐름에 대한 다양한 파악체계가 상호간에 체크할 수 있는 방식(cross-checking system)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자선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의 경우에도 자선적 기부금을 간단하면서도 단순하게 파악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여러 가지 통계와 보고서를 정교하게 분석해서 자선적 기부금의 실태를 추정(estimate)할 뿐이다.

우선 미국의 경우는 개인이나 단체가 자선적 목적으로 기부했을 경우 기부자나 기부금을 수령한 기관은 이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정해진 기간 안에 국세청에 보고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미국에서 알려진 자선적 기부금의 대표적 범주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금, 개인이 죽은 이후 유산으로 기부하는 기부금, 여러 종류의 재단을 통한 기부금, 마지막으로 기업의 직접기부가 있다. 이들이 기부한 자원들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s)의 개인에 의한 세금보고(tax return) 체계와 비영리조직이 미국의 국세청에 보고하는 재무관련자료의 원천인 Form 990에 의존한다. 다시 말해서 개인이 자선적 기부금을 기부했을 경우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기 때문에 각 개인들의 기부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국세청의 보고체계를 통해 일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이 기부금을 수령하는 민간복지조직이나 비영리조직은 정해진 형식에 따라 국세청에 기부금 수령자의 보고의무를 수행한다. 미국의 경우는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세금공제의 책임성(accountability)과 질이 높고 신뢰성 있는 보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고자, 회계사, 감독자, 그리고 일반대중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미국에서 자선적 기부금의 규모를 파악하는 방법은 다면적이다. 우선 자선적 기부에 관한 다양

한 종류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에는 민간기부금을 조사하는 권위있다고 알려진 기관은 두 종류이다. 첫 번째 기관은 AAFRC(American Association of Fund-Raising Counsel)인데, AAFRC trust for Philanthropy의 Giving USA가 자선적 기부금의 추정치를 제공하고 있다. 민간기부금에 대한 두 번째의 신뢰할 만한 자료는 Independent Sector의 서베이 조사의 결과이다. 특히 개인의 기부금에 대한 조사는 이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Independent Sector의 전국가구대상 조사가 가장 신뢰성이 있는 자료원이고 국세청의 세금환급 자료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민간기부금의 총량을 파악하는 경우 전문가의 지식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 Giving USA자료: 미국의 기부금에 관한 대표적인 지표인 Giving USA 자료는 여러 연구기관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국의 자선적인 기부금의 총액을 추정한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추정치와 다를 것이 분명하지만, 많은 경우 그 차이는 기부금의 범위나 분류체계와 같은 합의되지 않은 용어, 주요 개념의 범주나 정의의 차이에서 유래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Giving USA 자료는 우선 국세청에 보고된 자료가 기본적으로 개인의 기부금을 추정하는 원천이 된다. 기부금액을 추정하기 위해 회귀분석모델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추정에 필요한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국세청에 보고된 자료 가운데 세금환급 자료가 개인의 기부금에 대한 추정치가 된다. 1987년 이후에는 항목별로 자신의 세금을 공제받는(itemized deduction) 세금공제 자료가 납세의무자에 대한 개인기부금의 원천이 된다. 이 기간 사이에 비항목별 공제(nonitemized deduction) 또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다시 말해서 항목별로 공제를 받지 않는 세금공제자의 기부금은 미국의 Independent Sector의 “미국의 기부와 자원봉사”에 관한 조사에서 나온 자료를 활용한다. 이 모든 자료는 보스턴 대학의 사회복지연구소(Institute of Social Welfare)에 의해 분석되고 이 분석된 자료는 일반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와 소비자재무조사(Survey of Consumer Finances)에서 수집된 자료와 비교된다. 조사시점 때문에 추정에 필요한 기부의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부금을 예측하기 위한 회귀모델을 사용하기도 한다.

방법론적으로 Giving USA를 발표하는 AAFRC가 민간의 자선적 기부금을 조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비영리자선조직에 대한 무작위 표집(random sampling)의 방법이 첫째요, 미리 선정된 패널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패널조사가 두 번째이다. 무작위 표집조사는 비영리조직의 재정보고서인 Form990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했으며, 25,000\$ 이상의 예산을 가진 조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 조사는 미국의 National Center for Charitable Statistics에 의해 자료가 기록되고 있으며 주요 7개 비영리 영역인 예술/문화/인문학, 교육, 환경과 동물보호, 보건 및 건강, 인적서비스, 국제문제, 공익 분야에서 표본이 구성된다. 한편 기부조사에서 사용하는 무작위 표집의 경우 소규모 조직의 응답률이 25%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패널표본도 응답률도 27%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자료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적절한 수준의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 Independent Sector의 기부조사: 이 단체는 1980년에 미국에서 설립되었으며 Washington D.C.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이 조직은 미국의 재단,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그리고 비영리조직을 함께 묶는 가장 대표적인 비영리단체를 위한 전문포럼이며 그 자체가 일종의 비영리조직이다. 이 단체의 연구조사프로그램의 하나로서 The Independent Sector Giving and Volunteering National Survey가 1988년이래 매 2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Giving USA 자료가 비영리조직을 대상으로 서베이 조사를 실시하고, 패널조사와 다른 통계조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미국의 민간자원의 동원을 추정하는 데 반해 Independent Sector의 서베이 조사는 미국의 가구를 대상으로 여러 종류의 기부와 자원봉사 행동의 실태를 표본 조사한다. 최근에 발표된 1999년판 서베이의 특징은 미국의 갤럽 조사연구소에서 18세 이상 2,553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가정 내에서 대면 면접의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자선과 기부, 그리고 자원봉사에 관한 다양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Independent Sector가 Gallup에 의뢰해서 1988년 이래로 실시한 가정방문 면접조사에 대해 Gallup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더 이상 이 방식으로는 서베이 조사가 수행될 수 없다고 최근 통보하였다. Gallup이 지적한 문제점은 표본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와 20%에도 못 미치는 낮은 응답률이였다(Kirsch, McCormark, and Saxon-Harrold, 2001:495). Gallup이 1999년 마지막으로 가구면접을 실시한 이후 Independent Sector는 Westat라는 서베이 전문회사와 서베이 조사계약을 하였다. 10년 동안 기존의 방식으로 진행된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전국조사는 이제 전화조사(telephone survey)로 바뀌게 된 것이다. 10년 동안 Gallup이 실시한 가정면접의 평균적인 응답률이 19.2%였는데 반해 Westat의 전화면접의 응답율은 45.4%였다. 이런 방법론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제 겨우 두 번째의 조사를 수행한 우리의 기부조사의 방법론을 결정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²⁾

(2) 영국의 기부와 자원봉사 조사

영국에서 자선적 기부금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것은 1985년이다. 처음 4년 동안의 서베이는 '가정의 자선적 기부금조사'(Charity Household Survey)로 불려졌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개인기부조사(Individual Giving Survey)로 불리었다. 영국에서 기부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기부와 자원봉사 활동의 현황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다. 기부조사를 하나의 기관에서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이유는 매년 기부추이의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일관성 있게 제공해서, 해마다 기부의 변화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이다. 자선적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영국의 대표적인 민간단체인 CAF(Charities Aids Foundation)에서 주관하는 이 기부조사는 기부와 자원봉사를 동시에 조사하며, 기부나 자선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조사한다는 특징이 있다.

영국의 기부지수조사는 몇몇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작업이다. 1993년까지는 면접 설문조사

2) 올해 한국의 기부조사연구팀은 기부조사의 방법에 관한 이러한 세계적인 논의와 추세를 반영하여 다양한 자료수집의 방법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검토했으나 기부조사에 관한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의 사정상 일단 기존의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를 만드는 것은 CAF의 조사통계국(Research and Statistics Unit), Manchester 대학의 the Center for Applied Social Research, 그리고 전문적인 사회조사기관인 Public Attitude Survey Ltd.가 공동으로 맡았다. 면접조사는 전문적인 사회조사기관에 의해 12개월 동안 면접을 진행했으며, 영국의 성인인구를 대표하는 1,005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하지만 1994년 10월 이래로 영국의 개인 기부조사는 NCVO(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zations)에 이관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매달 1,0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되다가 1999년 이후에는 3개월에 한번씩 실시되고 있다.

모든 면접은 면접자가 직접 피면접자의 가구를 방문해서 수행하는 대면면접의 방법을 사용했으며 조사기관에서 자료의 입력과 컴퓨터 자료파일을 준비한다. 표본은 나이집단, 직업집단, 성별, 그리고 11개의 표준화된 지리적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할당표본(quota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표준으로 하고 해마다 몇 가지 새로운 문항을 추가함으로써 비교가능성을 높이려 하였다. 면접을 담당하는 조사기관은 면접의 표준을 관리하기 위한 통제절차를 적용하였고 이를 위해 10%의 표본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개인적으로 다시 면접하거나 전화로 확인을 하거나 다른 형태의 반응지를 보냄으로서 상호 체크를 하였다. 재조사는 대상자가 분명한가, 분류가 제대로 되었는가, 특히 면접자격에 관한 문제를 체크하였고, 또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밝히기 위해 몇 가지 주요 질문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을 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몇몇 기관에서 함께 실시하던 서베이 조사를 CAF와 NCVO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하고 있다. 가장 최근 CAF에서 발표한 영국의 개인 기부금에 대한 통계에 의하면 1996과 1997년 사이, 그리고 1997년과 1998년 사이의 두 시기 동안에 자선기관에 대한 가구별 기부의 비율은 약 30%로 비슷한 수준을 보여 준다.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1974년 이래 20년 동안 가구당 자선적 기부금의 비율은 서서히 쇠퇴하였다. 1997-1998년 사이의 가구당 평균 기부금의 액수는 한 주에 약 40파운드로서 그 이전의 해와 비교해서 특별한 변화가 없다. 하지만 최근 영국에서는 민간의 자선적 기부를 촉진하기 위한 세금제도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일반 대중의 자선적 기부금에 대한 행동과 태도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다(Jas 2000).

영국 정부는 최근에 나타난 자선적 기부금의 하락추세를 인식하여 세금제도를 통하여 자선적 기부의 문화를 자극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특히 민간복지단체나 비영리조직의 경우는 개인의 자선적 기부금이 주요 재정적인 수입의 원천이기 때문에 개인으로부터의 기부가 건전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영국정부는 새로운 기부의 시대(a new age of giving)를 만들기로 작정하고 기부를 촉진하기 위한 세금제도의 개혁을 도모하고 있다. 제도개혁이 지향하는 바는 기부자나 기부금을 수령하는 자선단체 모두에게 “현대적이고, 유연하며, 단순한” 세금제도에 있다. 특히 영국의 재무성은 현재의 세금 유인제도에 추가적으로 “세금에 효과가 있는 기부(tax-effective giving)”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CAF, IR(The Inland Revenue, 국세청), 그리고 NCVO가 법 개정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공동으로 연구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결국 영국에서 기부금을 파악하는 체계는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국제청의 자료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책임있는 민간기관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기부금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가지 특이한 것은 미국의 경우는 시종일관 가구당 기부금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 반해, 영국의 경우 기부조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가구당 기부금 조사를 실시했지만 몇 년이 지난 이후에는 개인별 기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3) 한국의 기부와 자원봉사 조사

한국에서 두 번째로 실시된 본 조사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기부조사 방법과 연구결과 뿐만 아니라 기부조사설계에서나 그리고 질문 양식에서 가장 진일보한 조사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는 캐나다의 통계청(Statistics Canada)이 실시한 가장 최근의 기부조사 설문지를 검토했으며, 동남아시아의 여러나라를 대상으로 APPC(아시아태평양공의재단협의회)가 실시한 기부조사 설문지, 그리고 존스 홉킨스대학의 세계적인 비영리조직에 대한 비교연구에서 사용한 기부와 자원봉사조사에 관한 연구방법론을 검토해서 본 연구의 조사설계에 응용하였다.

세계 여러나라의 기부지수조사와 한국의 기존 기부조사에서 제기된 중요한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대상 조사인가 가구대상 조사인가? 둘째, 순수 종교적인 목적의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와 다른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셋째, 기부와 자원봉사를 함께 조사할 것인가, 따로 조사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표본의 크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자료수집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에 모아졌다. 이러한 쟁점들을 여러방식으로 고찰한 다음 본 연구팀이 선택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올해의 기부조사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개인대상의 조사로서, Gallup의 표준조사진행방식으로 가구 방문 면접조사를 채택하였다. 작년과는 다르게 종교적인 목적의 기부를 전반적인 기부금 조사에서 제외했으며 금전적 기부금과 자원봉사활동을 함께 조사하였다. 하지만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문항은 최소한도로 줄이고 표본은 작년과 비슷하게 1,021로 하였다.

한국인의 기부와 자원봉사에 관한 서베이 조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었다. 나라별로 기부수준을 조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매년 기부의 수준을 동일한 척도로 비교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나라마다 처음으로 사용한 것과 유사한 질문지를 사용해서 해마다 주요 지수의 변화 정도를 추적하고 이러한 변화가 함축하는 바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나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지 않는 항목은 불가피하게 수정하였다. 작년의 설문지와 올해의 설문지 사이의 가장 뚜렷한 차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적 기부를 일반적인 자선적 기부의 범주에서 완전히 분리한 점이다. 작년의 경우는 일반적인 기부행동에 사찰이나 교회, 그리고 성당에 내는 헌금이나 보시도 포함했지만 올해는 조사의 맨 처음에 종교적 기부금을 분리해서 파악하고, 그 이후의 모든 질문은 종교적 기부를 제외한 자선적 기부금에 대해서만 조사하였다.

둘째, 작년의 경우는 매 기부건수마다 기부한 이유를 파악했지만, 올해는 전반적인 기부의 이유만을 질문함으로써 응답자가 회상하기 힘들거나 말하기 어려운 질문을 제외하였고 이로 인해 비체계적 오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려 하였다.

셋째, 작년에는 개인기부조사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응답자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기부처, 기부액, 기부방법을 조사했으나, 올해의 조사에서는 가족에 대한 기부조사를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개인들이 자신의 가족이 여러 상황에서 수행한 기부내용을 잘 알 수 없을 것이고, 또 가족구성원이 기부수준이 우리의 조사목적에 비추어 유용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넷째, 올해의 조사에서는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문항을 가능하면 간단하게 줄여서 가장 기본적인 현황만을 조사하였다. 또 질문지의 분량은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작년의 조사결과 특별히 유용성이 적었던 항목을 삭제하고, 기부처나 기부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응답자용 보기가이드의 항목도 합치거나 축소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네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도 장기적인 기부조사의 전통을 수립하기 위해 본 연구팀에서 몇 가지 이슈를 검토하였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다음 조사 때까지 현행의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추가적으로 검토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작년에 처음으로 이 조사를 기획할 때는 매년 조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일년 주기의 경우 경제·사회적으로 커다란 변동이 많지 않은 기간인데 이런 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연구팀에서 논의를 하였으나 일단 올해까지는 매년 실시하되 조사주기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둘째, 본 연구조사의 계획단계에서 중요한 모델로 삼았던 미국의 Independent Sector의 기부조사가 이제 더 이상 가가호호를 방문하는 면접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우리의 기부조사가 이런 방식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많은 의견과 내부토론이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터넷조사와 면접조사의 병행안이 제기되었으나 올해까지는 기존의 면접식 설문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최근 미국에서는 기부행동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서베이 조사의 방법론에 관한 종합적인 심포지움이 열리고 그 결과의 일부가 NVSQ 최근호에 실리기도 하였는데, 기부조사의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대책이 논의되었다(Brown and Burlingame 2001; Kennedy and Vargus 2001; O'Neill 2001; Hall 2001; Havens and Schervish 2001; Rooney, Steinberg, and Shervish 2001). 비록 한국의 기부조사가 올해에는 기존의 방식을 따랐으나 장차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해서 최선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조사의 방법과 개요

조 사 개 요

I. 조사의 목적

본 조사는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2001년 우리나라 국민의 기부와 자원봉사 실태 및 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함으로써 올바른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기부활동 관련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주요 조사 내용

본 조사의 질문 문항은 연구조사의 주체인 아름다운 재단과의 협의에 의해 정해졌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문 항
I. 자선적기부 행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 현금/보시 여부 - 2001년 자선적 기부 여부 - 자선적 기부처 - 자선적 기부 금액 - 자선적 기부처 인지경로 - 자선적 기부 방법 - 자선적 기부 정기성 여부
II. 자선적기부 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선적 기부 이유 - 자선적 기부 결정시 고려사항 - 자선적 기부하지 않는 이유 - 자선적 기부 의향 - 자선적 기부 금액 수혜 희망 분야 - 자선적 기부금 세금공제 혜택 인지여부
III. 자원 봉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 자원봉사활동 여부 - 자원봉사한 곳 - 자원봉사시간 - 자원봉사처 인지경로 - 자원봉사 정기성 여부
IV. 기 타	시설/기관/단체 신뢰성
V. 응답자특성	성, 연령, 종교, 학력, 직업, 결혼상태, 소득, 주거형태, 지역

III. 조사의 기본 설계(Research design)

1. 표본설계(Sample design)

- 앞에서 제시된 조사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갤럽은
- 무작위 표본추출(Random sampling)로 선정된 응답자를 대상으로
 - 숙달된 전문 면접원이
 - Gallup의 표준조사진행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조사의 설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1) 조 사 지 역	전국(제주도 제외)
2) 조 사 대 상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3) 표본추출방법	3단 층화 무작위 추출
4) 표 본 크 기	1,021명
5) 표 본 오 차	±3.1%P (95% 신뢰수준)

2. 조사 방법 및 기간

구 분	내 용
1) 조 사 방 법	면접원의 가구방문에 의한 1:1 개별면접조사(자기기입식 병행)
2)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3) 조 사 기 간	2002년 8월 20일 ~ 8월 30일(10일간)

3. 표본추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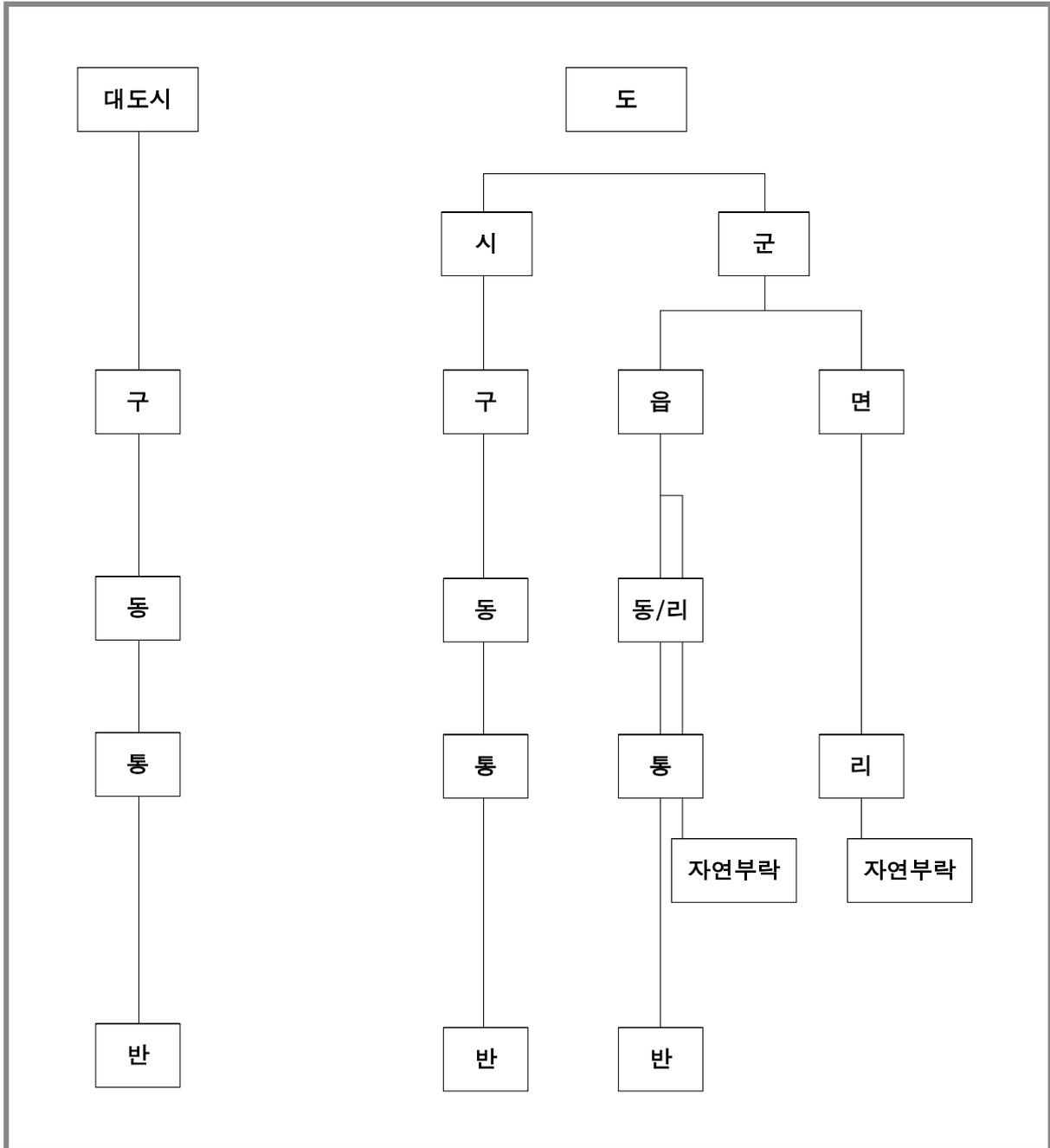
표본지점 Sampling은 인구비례확률추출법(PPS : Proportionate Probability Sampling)의 원리에 따라 다단계 지역추출법(Multi-Stage Area Sampling)에 의해 뽑혀지며 그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층화	전국을 광역행정단위별로 16개층, 즉 7대도시(특별시, 광역시)와 제주도를 포함한 9도로 나누고, 도는 다시 행정단위별로 시, 읍, 면으로 구분한다.
인구수 비례 할당	표본추출을 하기전에 지역별, 지역크기별 모집단의 구성비에 따라 표본지점수를 계산한다. 모집단 비율은 2002년 행정구역 총람(행정구역 편찬위)을 준거로 하며, 표본지점수는 시지역의 경우 지점당 8가구, 읍/면 지역은 지점당 10가구씩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계산한다. 단, 조사지점당 조사대상수는 조사의 성격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다단계 무작위 추출	<p>최종 표본지점에 해당하는 실제 조사지점(반/리 단위)을 다단계로 추출한다.</p> <p>1단계 추출 도시 : 특별/직할시 또는 해당 도 중 추출된 시에서 가구수 비례에 의해 지점수만큼 동을 무작위로 추출. 읍 : 해당 도에서 가구수 비례에 의해 지점수만큼 읍을 무작위로 추출. 면 : 해당 도에서 가구수 비례에 의해 지점수만큼 면을 무작위로 추출.</p> <p>2단계 추출 도시 : 추출된 동의 통, 반 리스트를 정리한 후 무작위로 통을 추출. 읍 : 추출된 읍내에서 동/리를 무작위 추출. 면 : 추출된 면에서 리를 무작위 추출.</p> <p>3단계 추출 도시 : 추출된 통의 통내에서 무작위로 반을 추출. 읍 : 추출된 통/리를 무작위로 반/자연부락을 추출. 면 : 추출된 법정 리내에서 한 개의 자연부락을 무작위로 추출.</p>
최종 응답자 선정	면접원들은 미리 확인된 최종 표본 지점에서 주어진 Starting Point와 계통추출방법에 따라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면접하고, 거절 등 면접 불능시에는 일관된 확률적 방법에 따라 대체 면접 실시.

* 추출된 표본지점이 상가, 공장 등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서 20% 정도의 예비 조사지점을 추출한다.

4. 최종응답자 선정

면접원들은 미리 확인된 최종 표본지점에서 주어진 Starting Point와 계통추출 방법에 따라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면접하게 된다. 거절등 면접 불능시에는 일관된 확률적 방법에 따라 대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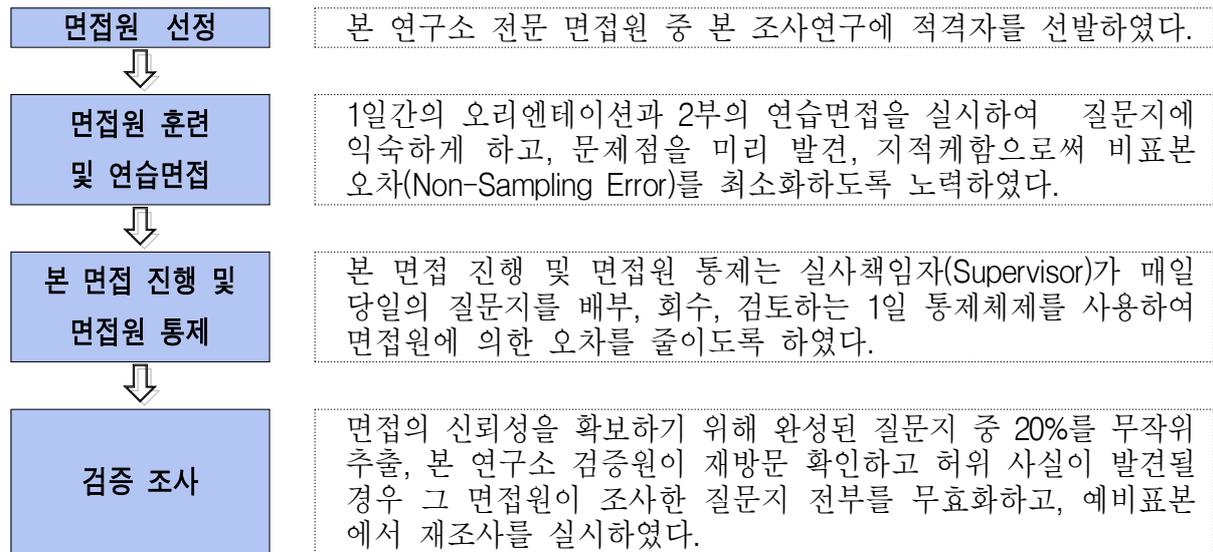


* 전국의 표본추출은 한국갤럽연구소가 2000년 통계청의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서와 2002년 행정구역총람을 토대로 자체 개발한 Random Sampling Program에 의한 전산작업으로 수행한다(샘플러Ver4.0).

IV. 실사 및 자료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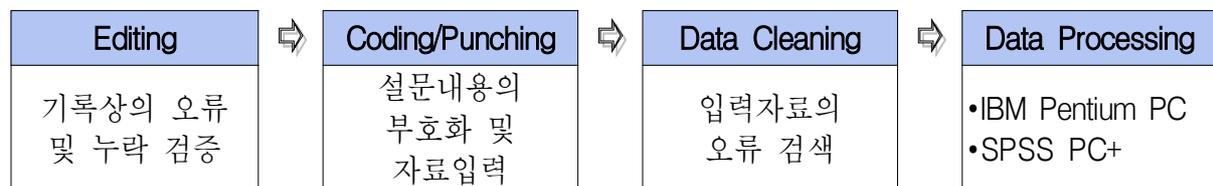
본 조사는 다음과 같이 갤럽의 표준방식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되었으며, 조사기간 동안 체계적인 검증과정을 거쳤다.

1. 실사 설계(Fieldwork Design)



2. 자료 처리(Data processing)

수집된 자료(Raw Data)는 Editing, Coding, Punching 과정을 거쳐 IBM 호환 Pentium PC를 사용하여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하였다.



3. 표(Crosstabulation)

- 1) 열(Row)에 따라 모든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 2) 자료는 기본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Demographics)에 따라 문항별로 조사결과 집계표가 제시되

었다. 본 조사에서는 성, 연령, 교육수준, 직업, 지역, 지역크기 등의 변인이 사용되었다.

V. 조사결과의 해석/이용시 유의사항

1. 해석시 유의사항

표본조사의 경우에는 표본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 조사결과를 해석할 때는 반드시 사례수와 관찰치(Observed Percentage)에 따른 표본오차를 고려해야 한다. 표본오차는 응답자 수와 집계된 결과의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무작위 추출을 가정한 경우의 오차는 아래 표와 같다.

[표본의 크기별 표본오차 예시 - 95% 신뢰 수준]

Observed Percentage	Sample Size				
	500	1010	2000	3000	5000
	± %P	± %P	± %P	± %P	± %P
50	4.4	3.1	2.2	1.8	1.4
40 or 60	4.2	3.0	2.1	1.8	1.4
30 or 70	4.0	2.8	2.0	1.6	1.3
20 or 80	3.5	2.4	1.8	1.4	1.1
10 or 90	2.6	1.8	1.3	1.1	0.8

2. 이용시 유의사항

표본조사의 경우에는 표본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 조사결과를 해석할 때는 반드시 본 조사결과를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발표 규범을 준수함으로써 독자들이 자료 해석시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다음의 내용을 조사결과와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 표집 대상이 된 모집단이나 표본의 특성
- 표본의 크기
- 표본 오차
- 자료 수집 방법
- 조사 기간
- 조사 의뢰 기관
- 조사 실시 기관

4. 조사결과 및 분석

(1) 응답자의 인구학적 배경과 특성

2002년 서베이는 전반적으로 2001년 서베이와 유사하며 표본 추출방식이나 표본에 선정된 대상자의 숫자도 비슷하게 구성되었다. 연구팀에서는 표본의 숫자를 두배 정도 늘이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비용과 예산의 제한 때문에 작년(1,010)과 거의 유사하게 1,021명을 최종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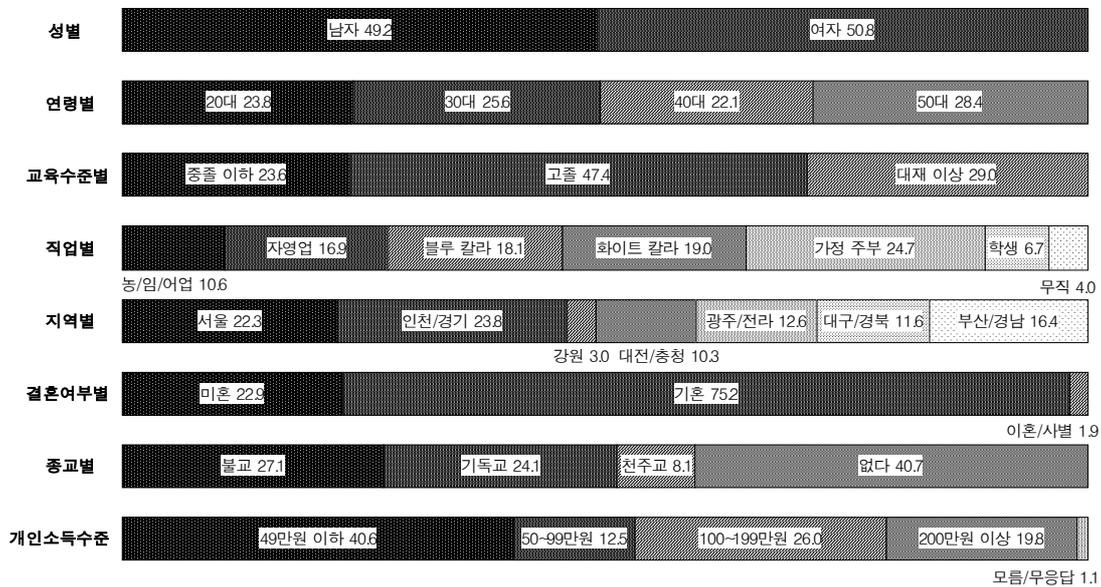
먼저 <그림 1>은 응답자의 특징을 다양한 배경변수인 성, 연령, 교육수준, 직업, 거주지역, 결혼지위, 종교, 그리고 각 개인의 소득 수준으로 나누어 표시한 것이다. 우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선정된 표본 1,021명 가운데 남자는 502(49.2%)명, 여자는 519(50.8)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약간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차이는 미미하다. 응답자의 연령은 20대, 30대, 40대, 그리고 50대 이상의 성인들이 골고루 포함되었으며 40대가 22.1%로 가장 적은 수가 포함된 반면, 50대 이상의 인구가 전체표본의 28.4%로 가장 많이 포함되었다. 20대와 30대의 응답자는 각각 23.8%, 25.6%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연령적 분포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인구분포에 맞추어 비중(weighting)을 따로 주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은 고졸학력의 응답자가 47.4%로서 거의 반수를 차지하는 반면, 중졸이하나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는 각각 23.6%와 28.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응답자의 직업별 분포는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가정주부가 24.7%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블루칼라나 화이트칼라의 직업을 가진 응답자도 각각 19%와 18.1% 포함되었다. 기타 자영업자나 학생, 그리고 농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성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직업이 없는 사람도 41명(4%)이 포함되었다.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 경기, 그리고 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46.1%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경남이 16.4%, 광주전라가 12.6%, 대구경북이 11.6%, 대전충청이 1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3%의 응답자만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로 이루어진 대도시 지역 거주민이 약 48.5%를 차지하는 반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거주민은 각각 38.2%와 13.3%를 차지하고 있다.

응답자의 결혼지위는 기혼자가 75.2%로서 전체응답자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미혼자는 22.9%, 이혼이나 사별한 사람은 1.9%를 차지하고 있다. 종교별로는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40.7%로서 가장 많으며, 불교가 27.1%, 기독교가 24.1%, 그리고 천주교가 8.1%를 차지하고 있다. 응답자를 개인소득수준별로 나누어 본다면 49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들이 가장 많이(40.6%) 포함된 반면, 2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단지 19.8% 포함되었다. 작년 조사와 비교해 볼 때 200만원 이상의 개인소득자들이 약 7%이상 더 많이 포함되었다. 49만원이하의 소득자가 가장 많은 이러한 소득 분포는 학생이나 가정주부, 그리고 무직자들이 표본에 많이 포함된 결과로 보여진다. 가구별 소득

은 월 평균 200-299만원 사이가 약 30.4%로서 가장 많은 비율은 차지하고 있으며, 100-199만원대의 가구소득자도 거의 비슷하게 29.6%를 차지하고 있다. 응답자의 거주형태는 자가소유자가 전체의 75.3%를 차지하고 있고, 전세자가 21.3%를 차지하는 반면, 월세나 기타 거주형태를 지닌 응답자는 3.4%에 불과하다.

응답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전체적으로 볼 때 작년과 거의 유사하며, 단지 약간 특이한 사항은 응답자의 소득, 특히 개인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작년에는 99만원이하의 응답자가 60%에 달했고 200만원이상의 응답자가 12.2%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99만원이하의 응답자는 53%로 약 7% 정도 줄어든 반면 200만원 이상의 소득자는 19.8%로 7.6% 증가한 것이 주목할 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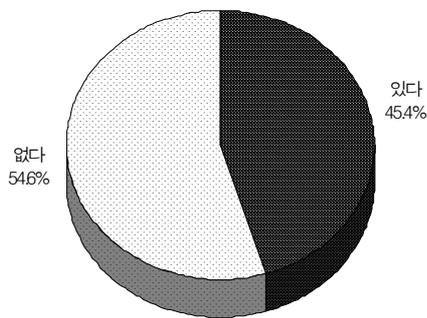


<그림 1> 응답자의 인구학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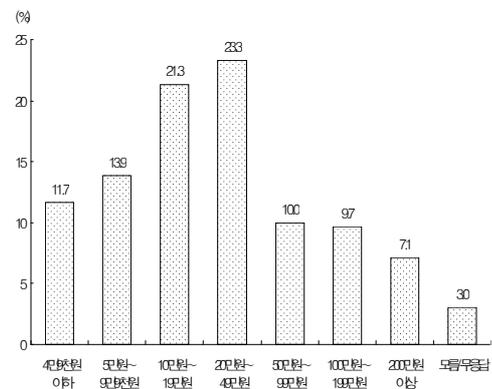
(2) 종교적 기부의 경험과 기부액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올해의 기부조사가 작년과 비교해서 가장 뚜렷하게 달라진 점은 전체적인 기부현황 파악에서 종교적인 목적으로 종교기관에 헌납한 기부를 조사의 시작부터 따로 분리했다는 점이다. 올해 설문지의 첫 번째 질문에서 '귀하는 지난 한해, 즉 2001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교회/성당/절 등에 종교적인 의미로 돈이나 자산을 내는 것, 즉 헌금이나 보시를 한 적이 있는가'와 그 액수를 물었다. 올해 조사에서 종교적인 기부를 서두에 분리한 이유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볼 때 종교적인 목적의 기부금은 민간비영리단체의 기금 모금이나 순수한 의미의 자선적인 민간활동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2001년 한해동안 순수하게 종교적 목적의 기부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은 <그림 2>와 같이 전체의 4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부한 적이 없는 사람은 54.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그림 3>은 2001년 한해 동안 종교적인 목적의 기부금의 총액을 액수의 범위별로 그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20만원에서 49만원 사이의 기부자가 비율이 가장 높는데 종교적인 기부의 경험자 가운데 23.3%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만원이상 19만원이하의 응답자가 두 번째로 많은 21.3%를 차지하고 있다. 2001년 한국인 1인당 종교적인 목적의 기부금 평균금액은 212,300원이지만 중앙값은 제로이다. 평균치와 중앙치 사이의 이러한 괴리는 기부금액수의 평균값은 소수의 고액기부자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기 때문이며 또 56%에 달하는 기부 미경험자와 무응답자의 영향 때문으로 보여진다. 본 조사에 포함된 종교적 기부경험자 463명의 일년간 평균적인 기부금액은 482,520원이다.



<그림 2> 종교적 기부의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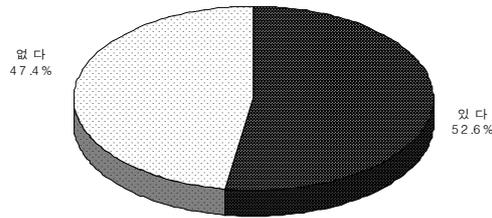


<그림 3> 종교적인 목적의 기부금 액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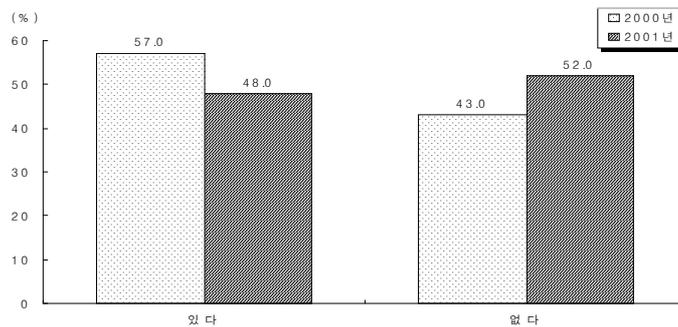
(3) 자선적 기부의 경험

본 조사의 두 번째 질문은, 작년의 질문에서는 포함된 종교적 기부를 분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귀하는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현금/보시를 제외한 ‘자선적 기부’를 한 적이 있습니까?”로 바뀌었다. 이 질문은 한편으로는 한국 성인의 기부경험을 묻는 것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기부 경험자와 미경험자를 구분해서 각기 다른 유형의 질문으로 안내하는 출발점이 되는 문항이다. 기부의 경험 여부도 일생동안 단 한번이라도 기부한 적이 있는 경우와, 이 조사의 관심 시기인 2001년 한해 동안의 기부경험 여부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아래의 <그림 4>에 의하면 52.6%의 응답자들이 종교적인 목적을 제외하고도 일생을 통해서 적어도 한번 이상의 기부경험이 있는 반면, 47.4%의 응답자들은 기부한 경험이 없다. 작년의 조사에서는 종교적인 목적의 기부경험을 포함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기부경험자가 85.7%였고 기부미경험자가 14.3%였다. <그림 5>는 일생동안이 아니라 2000년과 2001년에만 한정해서 자선적 기부경험자와 미경험자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전년도에 비해 약 9% 수준에서 기부경험자는 줄어들었고, 기부미경험자는 그 만큼 늘어났다.



<그림 4> 자선적 기부경험



<그림 5> 자선적 기부경험의 비교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해 동안의 기부경험에 관한 현황을 인구집단별로 더욱 세분해서 살펴본다면 남녀별, 연령대, 지역크기별, 종교에 따라 기부경험여부는 별다른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약간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주는데, 가령 서울지역이나 광주전라지역의 응답자 가운데 기부를 한 사람의 비율이 전국의 평균보다 8% 낮은 반면, 대전충청지역(70.5%)이나 대구경북지역(60.2%)은 기부를 한 사람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높다. 결혼지위에 따라서는 기부경험의 비율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기혼자나 이혼사별자 사이에는 기부 경험의 비율이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지 않지만, 미혼자의 기부경험의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편이다. 종교의 유무도 기부의 경험여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데, 종교가 없는 집단은 기부를 한 경험이 42.2%인 반면,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기부를 해 본 비율이 약간 높다. 종교인들 가운데 천주교인과 기독교인의 기부경험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약간 높는데 천주교인들의 55.8%, 기독교인들의 53%가 기부한 경험을 보고하고 있다.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기부의 경험여부에 차이를 보이지만 그 정도는 미미하다.

결국 기부의 경험에서 전체적인 평균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첫째, 지역적으로 서울과 호남 그리고 강원지역의 응답자들이 전국평균보다 기부경험이 적은데 반해, 충청지역과 경북지역은 전국평균보다 기부경험이 많다. 둘째, 미혼집단이 기혼이나 이혼사별집단에 비해 기부를 경험한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종교가 기부의 경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데 종교가 있는 사람의 기부 경험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그것보다 높은 편이다.

(4) 한국 성인의 기부처

한국의 성인들은 어디에 자선적 기부금을 내는가? 2001년 한해동안 자선적 기부를 한 시설, 기관, 그리고 단체를 묻는 질문에 대해 중복응답을 포함해서 전체 490사례가 보고되어 분석되었다. 그 가운데 가장 빈도수가 높은 기부처로 지목된 상위 7개 기관은 <그림 6>이 보여주듯이 자선모금단체/민간재단(38.2%), 언론기관(38%),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20.3%), 개인(11.8%), 지역사회(4%), 시민단체(1.8%), 중고등학교(1.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최근 기부금 모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실제로 독지가들의 고액기부가 자주 언론에 소개되는 대학에 대한 기부는 1%도 안되고 있으며, 문화예술단체와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상위 7개 기관 가운데서도 시민단체나 중고등학교에 대한 기부도 1%대에 머물러 있어 시민단체나 교육기관은 한국인이 선호하는 기부처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의 기부처에 대한 자료를 작년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현저한 특징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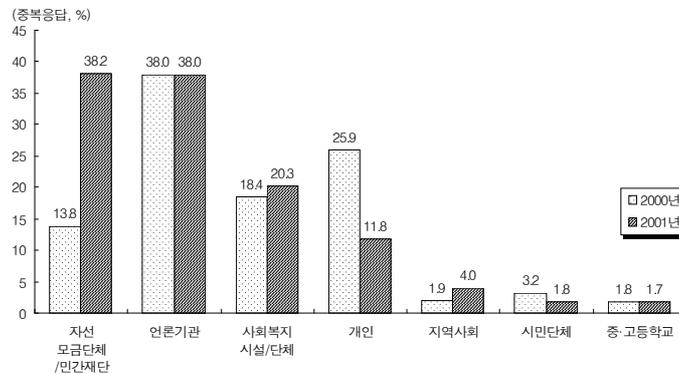
첫째, 종교적 기부를 제외하면 작년에는 언론기관이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기부처였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자선적 모금단체나 민간재단이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기부처로 나타났다. 언론기관에 대한 기부는 작년과 똑같이 38%를 차지하여 언론기관을 통한 기부는 여전히 활발하지만 모금단체나 민간재단에 대한 기부는 작년에는 13.8%(4위)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38.2%를 차지하여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기부처가 되었다.

둘째, 작년에는 25.9%(2위)를 차지했던 개인에 대한 기부가 올해는 11.8%로 반 이상 줄어들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에 대한 기부는 작년(18.4%)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에 대한 기부의 경우, 지역적으로 강원지역 거주자가 55.3%를 차지하여 다른 지역과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반면, 부산경남지역과 대전충청지역에서 사회복지단체를 기부처로 선택한 비율은 전국평균(20.3%)의 반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올해 시민단체에 대한 기부는 전체빈도수가 너무 적어서(9사례) 기부자의 특징을 분석하기가 어렵다. 기부처에 대한 이러한 조사결과에서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이 줄어드는 대신 자선모금단체나 재단을 경유해서 기부하는 경향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언론기관은 여전히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며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부처이며, 시민단체에 대한 기부는 그 빈도가 반으로 줄어들었다.

어떤 배경적인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특정한 기관에 더욱 빈번히 기부하는가를 자선모금단체/민간재단, 언론기관, 사회복지시설/단체, 그리고 시민단체의 순서로 알아보자. 우선 올해 가장 인기 있는 기부처로 등장한 자선모금단체는 교육수준은 중졸이하, 직업으로는 학생, 지역적으로는 광주전라지역, 그리고 개인소득수준으로는 50~99만원의 소득대의 기부자가 전체평균(38.2%)보다 많이 포함되어 있다. 언론기관에 대한 특정 집단의 기부패턴은 작년과 거의 유사한데 지역별로 가장 커다란 편차를 보이고 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부산경남지역, 대구경북지역, 그리고 대전충청지역 거주자가 언론기관에 대한 기부빈도가 높은 반면, 강원지역과 광주전라지역은 언론기관에 기부하

는 사람이 많지 않다. 두 해에 걸쳐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결과는 각 지역별로 지역언론의 차등적인 역할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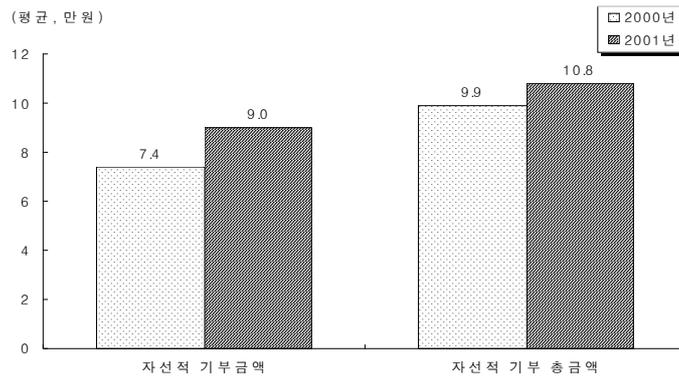


<그림 6> 한국인이 선호하는 기부처

(5) 한국인은 얼마를 기부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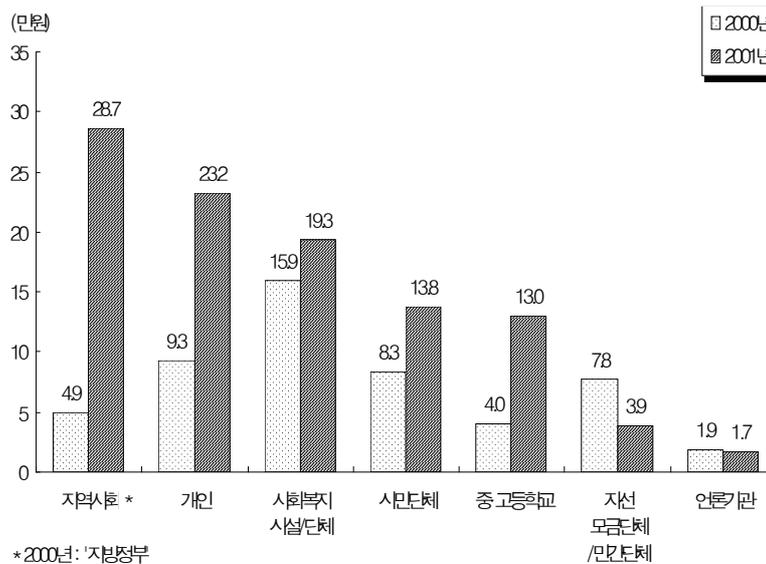
한국의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작년 한해동안 얼마를 기부했는가? 우선 2001년 한국인 1인당 종교적인 목적의 기부금 평균금액은 212,300원인데 반해 순수하게 자선적인 목적의 기부금 평균금액은 51,775원이다. 그러나 기부경험자 만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종교기관에 대한 평균기부액수는 48만원이었는데, 종교기관을 제외한 순수한 자선적 기부금의 총액수는 얼마인가? 올해의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1021명 가운데 490명의 응답자가 644건의 기부를 했다고 보고하였다. 아래의 <그림 7>에서 알 수 있듯이 2001년 한해 동안 기부경험이 있는 사람의 사례당 평균기부금액은 89,780원이고 개인별 총기부금액은 108,110원이다. 이러한 숫자는 작년의 74,100원에 비해 사례당 기부금액수는 21% 늘어났고 개인별 기부금 액수는 작년의 98,660원에 비해 9.5% 늘어난 숫자이다.

기부자의 배경에 따라 평균적인 기부금액은 얼마나 달라지는가? 우선 아래의 <그림 8>은 주요 기부처별 평균적인 자선적 기부금액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사례수가 가장 많은 언론기관의 사례별 평균기부금이 17,240원인데 반해, 자선기관이나 민간재단의 사례별 평균기부금은 39,200원이다. 이러한 수치는 작년과 비교해 볼 때 언론기관의 기부금액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자선단체 및 재단에 대한 기부금 액수는 2000년의 7만8천에서 2001에는 3만9천으로 정확하게 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보았듯이 민간재단이나 자선기관의 경우 기부처로 선정된 비율이 작년에 비해 무려 3배정도 늘어났으나, 기부금 액수는 반으로 줄어든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기부처에 따라 사례별 기부금 액수만을 단순 비교한다면 지역사회, 개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 시민단체, 중고등학교 순서로 기부금의 액수가 많으며, 작년과 비교해 볼 때 이들 기관에 대한 기부금 액수는 모두 증가하였다. 다음의 <표 2>와 <그림 9~15>까지의 그래프는 2001년 한해 동안의 기부사례별 평균 기부액과 기부개인별 총기부액을 주요 범주별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7> 2001년 한해 동안의 기부금 액수

각 배경변수별 평균기부액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는 여자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을 기부한다. 연령별로는 40대의 기부액수가 많은 반면 20대의 기부액수는 현저히 적다. 대학 이상의 학력자는 중졸이하의 학력자에 비해 3배 이상 많이 기부한다. 직업별로는 학생이나 농업, 어업 종사자의 기부액이 적은 반면, 자영업자의 기부금은 현저히 높은 편이다. 둘째, 기독교인과 종교가 없는 사람은 전체 평균보다 기부금액이 높은 반면 불교인과 천주교인의 기부액수는 평균보다 낮다. 개인소득수준이 200만원 이상인 사람의 기부금은 평균의 2배에 달하지만 50~99만원의 소득을 가진 응답자의 기부금은 평균의 반에 불과하다. 셋째, 이러한 패턴은 개인의 총기부금액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학이상의 학력자, 기독교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200만원 이상 소득자의 평균기부금액이 다른 범주의 평균보다 일관성 있게 높으며 이러한 경향은 작년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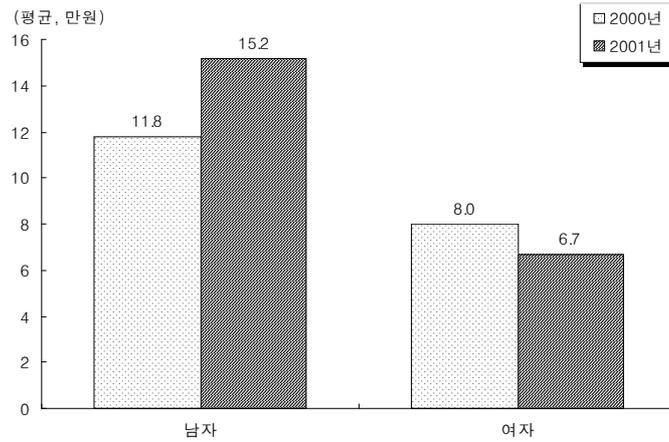


<그림 8> 기부처별 자선/기부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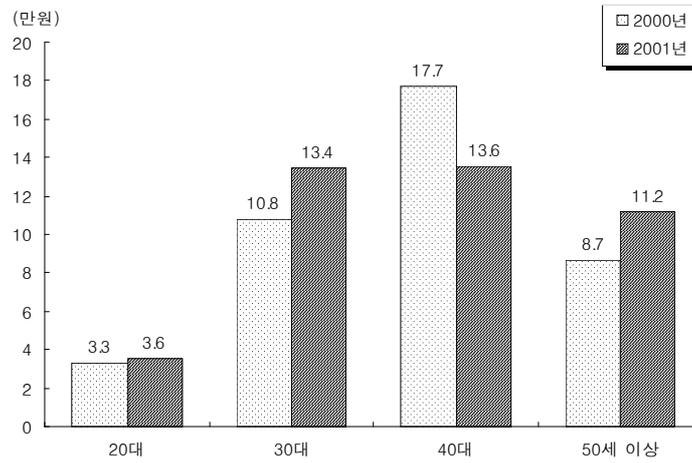
<표 1> 주요 인구집단별 기부금액의 평균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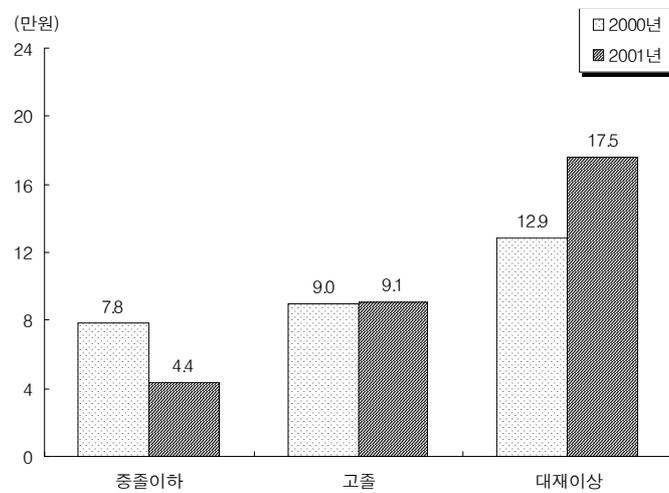
		기부건수별 평균금액(N)	기부개인별 평균금액(N)
전 체		89.78(644)	108.11(490)
성 별	남 자	125.04(314)	151.72(237)
	여 자	56.34(330)	67.44(253)
연 령 별	20대	28.85(115)	35.73(103)
	30대	101.51(232)	134.26(140)
	40대	108.53(182)	135.83(122)
	50세 이상	97.49(115)	111.66(125)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38.01(106)	43.53(98)
	고 졸	74.40(308)	90.83(236)
	대재 이상	134.44(230)	175.48(156)
직 업 별	농/ 임/ 어업	40.49(47)	39.83(47)
	자 영 업	161.45(120)	194.43(91)
	블루 칼라	92.87(112)	99.89(89)
	화이트칼라	84.28(144)	120.34(101)
	가정 주부	59.99(181)	73.23(126)
	학 생	28.44(26)	38.04(22)
	무 직	178.46(14)	170.39(14)
지역별	서 울	100.97(112)	127.75(91)
	인천/ 경기	89.06(137)	96.99(115)
	강 원	134.29(17)	155.02(13)
	대전/ 충청	75.37(102)	100.81(74)
	광주/ 전라	42.86(49)	130.35(47)
	대구/ 경북	91.00(111)	120.60(71)
	부산/ 경남	62.50(116)	76.29(78)
지역크기별	대 도시	70.03(308)	90.45(233)
	중/ 소도시	113.08(251)	134.00(186)
	읍 / 면	92.34(85)	97.65(71)
결혼여부별	미 혼	69.47(110)	79.62(96)
	기 혼	94.48(526)	116.89(384)
	이혼/ 사별	60.63(8)	44.07(10)
종교별	불 교	62.10(186)	82.91(138)
	기 독 교	120.35(170)	133.57(130)
	천 주 교	48.66(65)	69.06(46)
	없 다	101.38(223)	119.15(175)
개인소득 수준	49만원 이하	60.87(235)	70.63(181)
	50~90만원	40.87(70)	47.11(56)
	100~199만원	70.33(171)	81.03(134)
	200만원이상	175.28(163)	233.40(114)
	모름/ 무응답	6.20(5)	6.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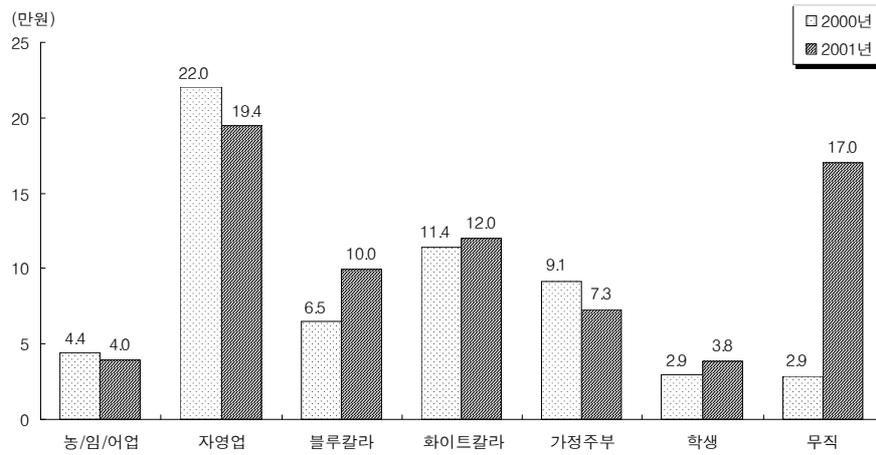
<그림 9> 성별 기부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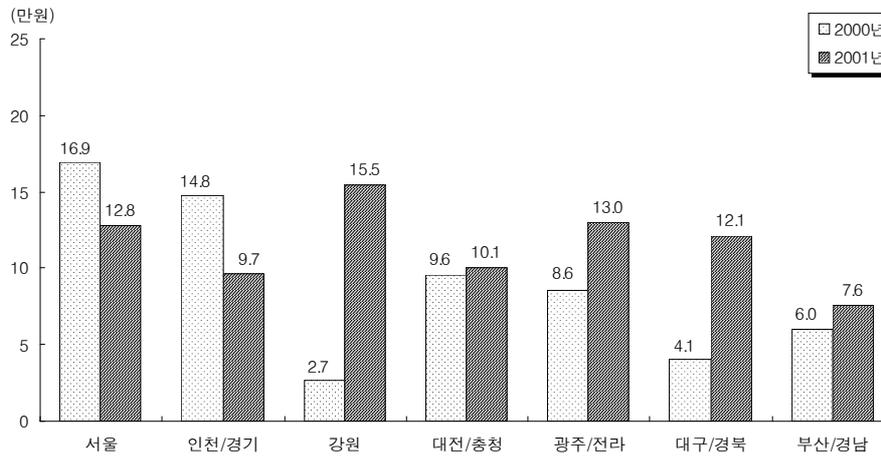
<그림 10> 연령별 기부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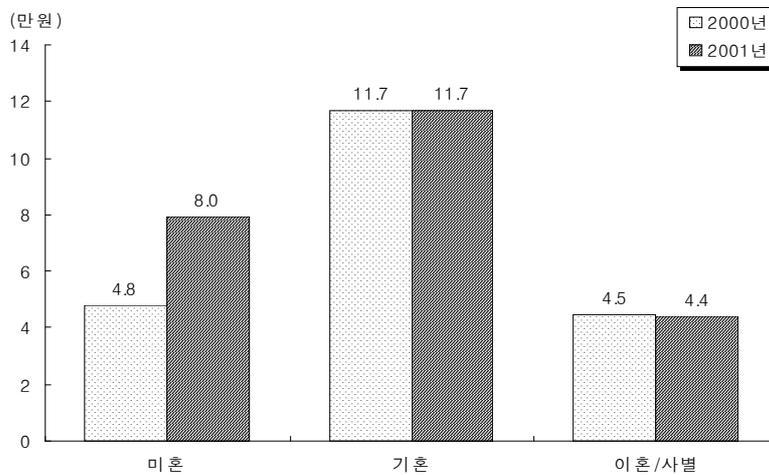
<그림 11> 교육수준별 기부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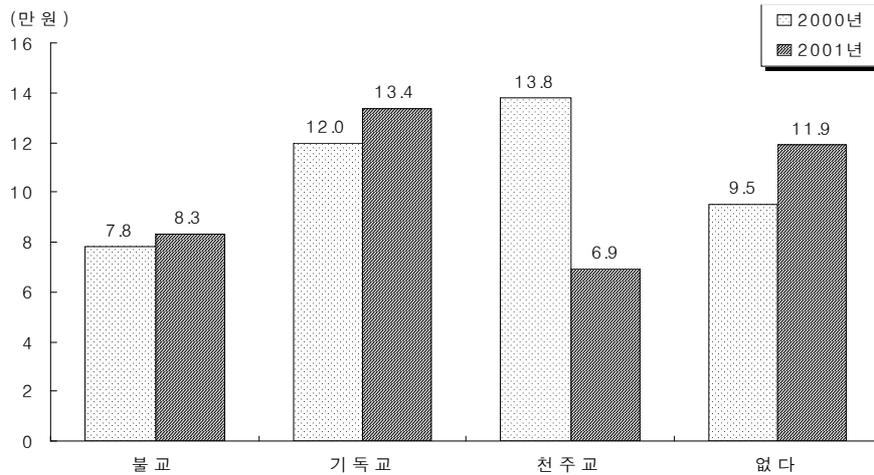
<그림 12> 직업별 기부금액



<그림 13> 지역별 기부금액



<그림 14> 결혼여부별 기부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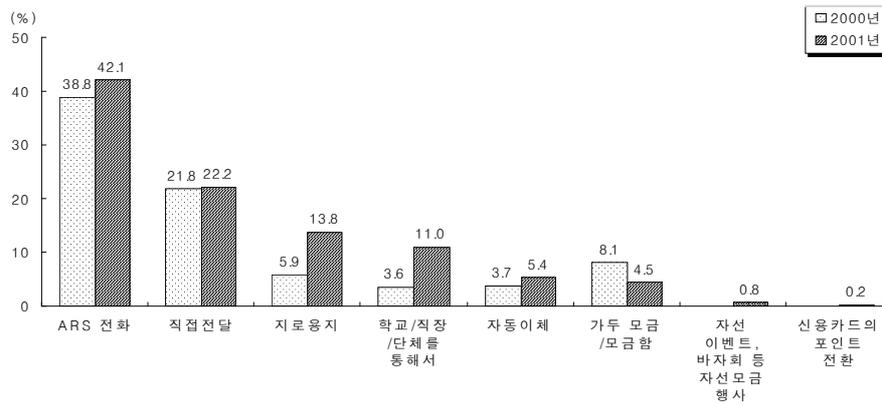
<그림 15> 종교별 기부금액

(6) 자선과 기부의 방법

한국인은 금전이나 물품을 어떤 방식으로 기부하는가? 이러한 문제는 기부에 관심을 가진 개인 기부자나 모금기관, 그리고 비영리단체 모두에게 주요 관심사가 될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한국인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기부의 방법을 조사했는데 모두 644사례가 보고되었다. 이 문항은 사전에 연구팀이 미리 준비한 다양한 종류의 기부방법을 응답자들에게 보기카드로 제시하고 기부자들이 자신들이 특정한 기관에 기부할 때 사용한 방법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작년의 조사에서는 모두 14가지의 기부방법을 묻는 문항을 사용했으나 올해는 우리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년 조사에서 사례수가 적었던 방법은 제거한 다음, 최종적으로 9가지의 기부방법(부록2)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림 16>에서 알 수 있듯이 2001년 한해동안 기부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기부의 방법은 ARS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42.1%)이다. 그 다음으로는 기부를 원하는 시설이나 기관에 본인이 직접 전달(22.2%)하거나, 지로용지를 사용하거나(13.8%), 학교나 직장 등 단체를 통해서(11%) 기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이체의 방법이나 가두모금에 참여해서 기부한 사람의 비율은 5%에 불과하다. 다른 나라에서 기부방식으로 흔히 사용된다고 알려진 자선이벤트에 참석하거나 자선적 바자회 행사에 참석해서 기부하는 방법, 그리고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전환하는 기부의 방법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2000년의 결과와도 대단히 유사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ARS전화를 이용해서 집이나 직장에서 쉽게 소액기부에 참여하거나, 연말연시나 재해를 당한 경우에 후원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기부하는 형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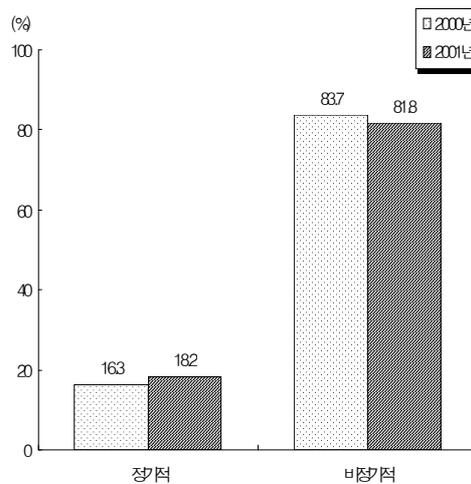
기부처에 따라 특정의 기부방식이 많이 사용되는데 사회복지단체와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직접기부의 방식이 가장 선호되고 있는 반면, 언론기관에 대해서는 ARS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압도적으로(96.9%) 선호되고 있다. 지로용지를 통한 기부의 방법은 복지시설과 자선단체에 흔히 적용되는 반면, 자동이체를 통한 기부의 방법은 시민단체의 기부에서 더 자주 적용된다.



<그림 16> 자선/기부 방법

(7) 기부의 정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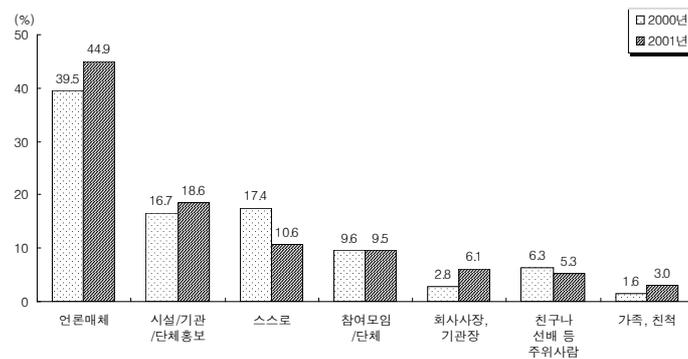
2001년 한해 동안 한국인의 자선적 기부행동이 얼마나 정기적인가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래의 <그림 17>이 보여주고 있다. 기부행위의 정기성은 2000년이나 2001년이 아주 비슷한데 한마디로 대단히 비정기적이다. 물론 비정기적인 기부를 일회적인 기부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2001년 조사에 응한 응답자들의 약 81.8% 정도가 비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기부자는 18.2%에 불과하다. 다만 작년에 비해 정기적인 기부자의 비율이 16.3%에서 18.2%로 약간 늘어난 것이 차이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추구하고 있으며, 민간의 자선적 기부금을 재정적인 원천으로 기대하고 있는 많은 사회복지단체 및 자선기관, 그리고 공익적인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서는 정기적인 후원자를 확보하는 전략이 민간자원동원의 장기적인 과제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17> 자선/기부 정기성 여부

(8) 기부처의 접촉경로

일반 기부자들이 어떻게 자신이 기부한 기부처를 알게 되었으며, 다양한 종류의 기부대상 가운데 특정한 기부처와 접촉한 경로가 무엇인가를 조사하였다. 응답자들이 보고한 전체 사례수 644건을 분석하면 <그림 18>과 같이 주로 일곱가지 방식으로 기부처를 접촉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활용한 경로는 세가지 방법이다. 첫째, 신문방송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접촉한 경우가 가장 흔한 경로인데 무려 44.9%의 응답자들이 언론을 통해 기부처를 알게되었다. 특히 언론기관에 기부한 경우 전체 196건 가운데 95%이상이 언론을 통해 접촉한 경우이다. 두 번째는 시설이나 기관, 그리고 단체의 홍보를 통해 알게된 경우인데 전체의 18.6%가 이러한 경로를 통해 기부처를 알게 되었다. 셋째, 스스로 찾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0.6%이며 자신이 참여하는 모임이나 단체를 통해서 인지한 경우는 9.5%로 나타났다. 기부처 접촉경로에 관한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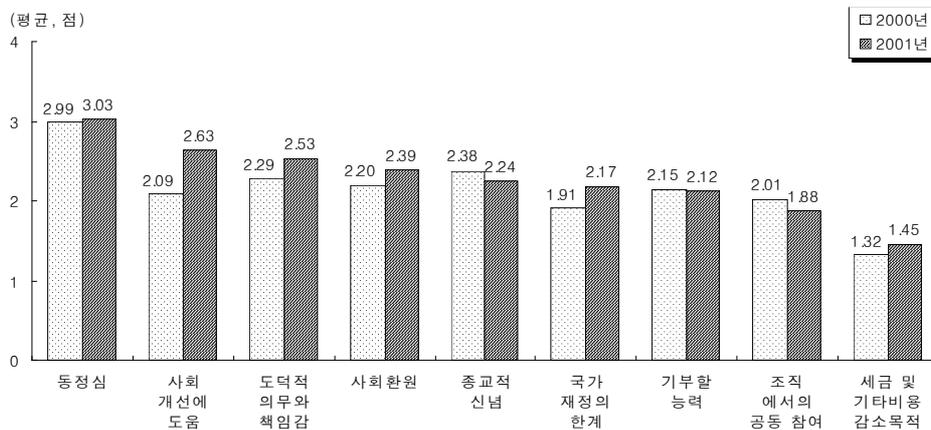
<그림 18> 자선적 기부처 접촉경로

(9) 자선적 기부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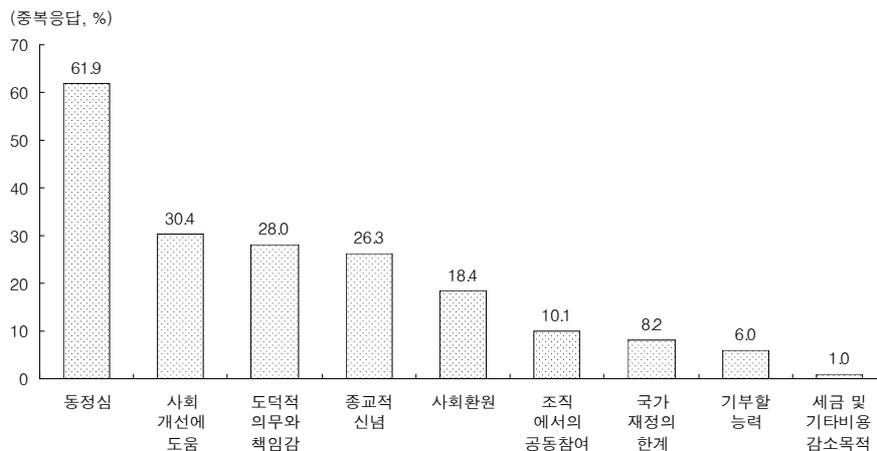
왜 사람들은 기부행동에 참여하는가? 기부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이 질문에서는 다른 나라의 연구나 조사에서 흔히 지적된 기부의 이유,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부의 동기를 포함해서 모두 아홉 가지 자선적 기부의 이유를 조사했으며 각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그 문항에 강하게 동의한다는 의미이다. 작년에는 10문항에 대해 질문을 했지만 올해에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잘 맞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단지 기부를 요청받았기 때문에 기부한다'라는 문항을 제외했다. 대신에, 기부의 동기를 더욱 분명히 밝히기 위해 기부시의 첫 번째 고려사항과 두 번째 고려사항을 이어지는 문항에서 한번 더 선택하도록 하였다.

조사결과는 한국인의 기부동기와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들이 가장 확실하게 동의하는 기부의 이유는 단 하나이다. 그것은 아래의 <그림 19>와 <그림 20>에서 알 수 있듯이 "어렵고 불쌍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에서 기부한다"는 것이다. 이 문항의 점수는 4점 만점에 3.03으로서 긍정의 비율이 높은 편이고, 특히 중복응답을

포함했지만 무려 61.9%의 응답자들이 동정심을 기부의 주요 이유로 지적하고 있다. 이어지는 네 항목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동의하면서 기부의 이유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각 기부동기에 대한 동의의 정도를 나타내는 항목에서나,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두 가지 주요 이유를 선택하는 문항에서도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사회적 명분이나 사회발전을 위한 공익적인 동기들인데 '사회개선', '도덕적 의무와 책임감', 그리고 '부의 사회환원'과 '종교적 신념'이 바로 그것이다. 기부동기로서 동의의 정도가 가장 낮은 네 가지 동기는 자선적 기부의 주요 요인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항목인데, 특히 "연말정산 등의 세금과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기부한다(1.45)"라는 문항과 '조직에서의 공동참여(1.88)'라는 문항은 응답자들의 동의정도가 낮아 2점도 되지 않는다. '부의 사회환원'이라는 항목은 부자들의 기부에서는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항목이지만 보통사람들의 기부동기로서는 적절성이 떨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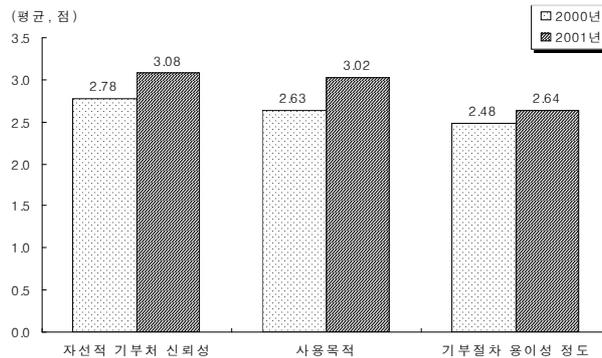
<그림 19> 자선적 기부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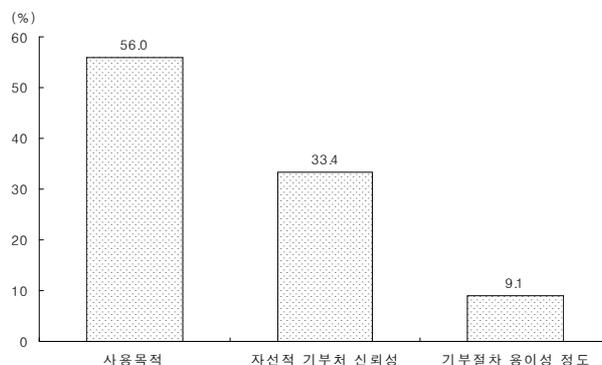
<그림 20> 자선적 기부의 주요 이유

한편 기부의 이유와 비슷하지만 성격이 약간 다른 문항으로는 자선적 기부를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의 영향력에 관한 문항이다. 모두 3가지의 문항 가운데 응답자들이 가장 강하게 긍정적인 요소를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들은 기부를 요청하는 시설/기관/단체가 얼마나 믿을 만한가의 정도(3.08)와 기부된 자원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가의 여부(3.02)에 가장 강하게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기부의 절차를 포함해서 기부를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가의 정도(2.64)도 그 강도는 약하지만 여전히 기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그러나 기부 결정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기부금의 사용목적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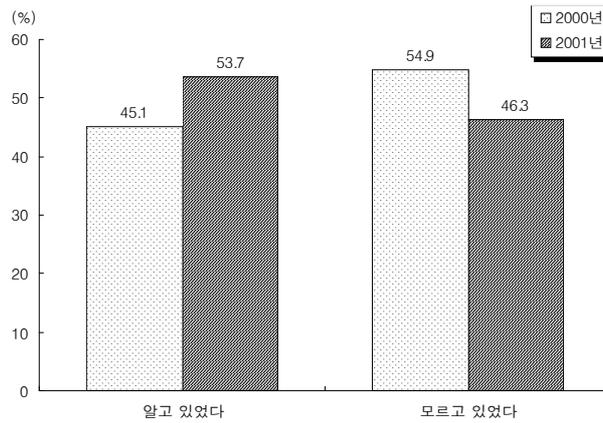
한편 세금이 기부금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다른 나라의 조사에서 흔히 지적되었다 (Independent Sector 1999). 본 조사에서도 자선적 기부금이 연말 연시에 세금공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그림 23>이 보여주듯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3.7%로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율(46.3%)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나 작년에 비해 기부금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인지한 비율이 8% 정도 증가하였다. 이렇게 증가한 인지도는 장래 우리나라에서도 세금에 민감한 기부제도나 세금 유인적인 기부금의 개발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흥미롭다.



<그림 21> 자선/기부시 고려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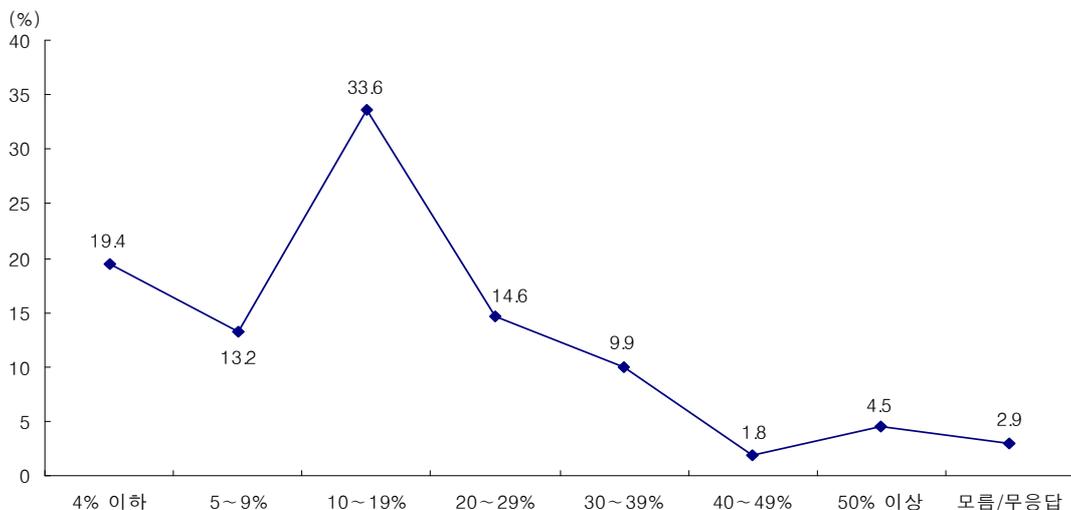
<그림 22> 기부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그림 23> 기부금의 세금공제 인지여부

(10) 기부단체 운영 및 행정비용

자선적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고유의 목적사업을 제외한 행정이나 활동비용으로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이슈는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Jung, Park, and Hwang, 1999; 시민사회연대 자료집 2002; Silk 1999). 우리나라에서도 현행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기부금품의 2%만을 행정비용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이를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모금된 기부금 가운데 어느 정도를 행정비용으로 허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아래의 <그림 24>에서 나타나듯이 전체 537명의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전체 모금액의 14.28(작년 17.84)%를 허용 가능한 비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허용치는 전 세계적으로 흔히 받아들여지는 범위와도 비슷하며, 최근 시민사회연대회의에서 국회에 입법 청원한 20% 수준과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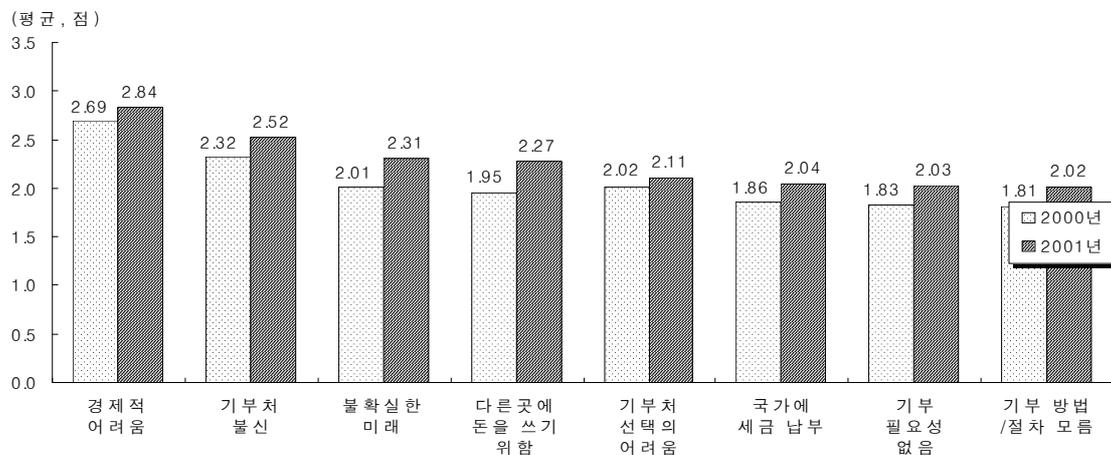


<그림 24> 기부단체 행정/ 운영 기금 허용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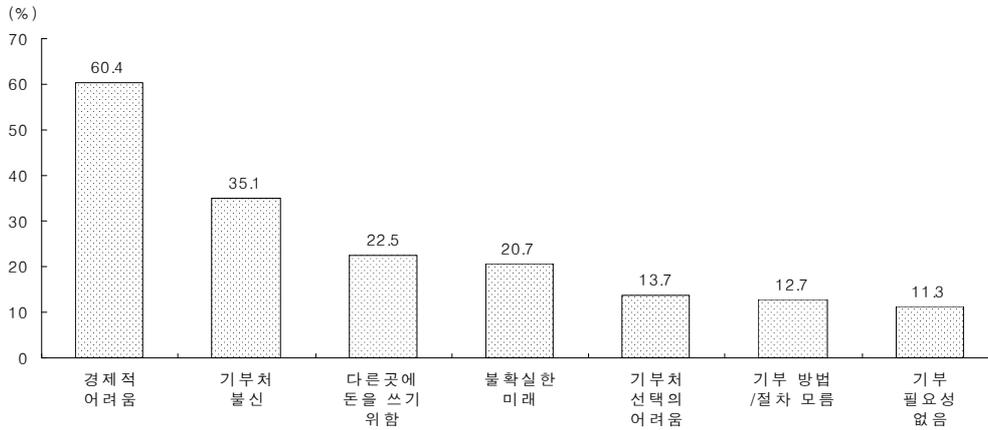
(11)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

올해의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한 서베이 조사의 응답자 가운데 52.6(작년85.7)%에 해당하는 537명이 지금까지 분석한 질문에 응답하였다. 반면 두 번째 문항에서 기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484명은, 기부경험자에게만 해당하는 문제는 건너뛰어,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에 관한 문항부터 응답하였다. 이들에게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로 모두 여덟 가지가 제시되었다. 응답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동의의 정도를 4점 척도로 표시하였다. <그림 25>에서 보듯이 사람들이 자선적 기부를 하지 않는 특별히 지배적인 이유는 부각되지 않았으나 제시된 이유 가운데 “자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강하게 동의하는 (2.84%) 이유로 지적되었다. 한마디로 돈이 없어서 기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기부처를 불신하는 것(2.52%),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2.31%), 그리고 다른 곳에 돈을 쓰기 위함(2.27%)이라는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나머지 문항에 대해서는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로 긍정하기보다는 차라리 약간 부정하는 경향이 더 높는데 이를테면 기부의 방법과 절차를 모르기 때문(2.02)이라는 문항과 기부의 필요성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문항(2.03)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기부하지 않는다는 응답(2.04)과 기부처 선택의 어려움(2.11)과 같은 문항에 대해서도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로서 별로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기부를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두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이어지는 문항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26). 즉 경제적 어려움과 기부처 불신이 기부를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다시 한번 지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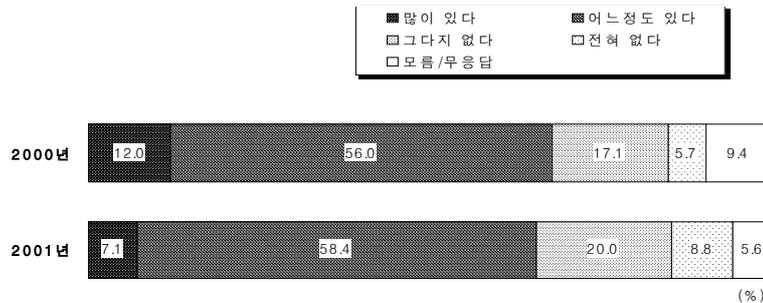
하지만 “앞으로 기부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하겠는가?”라는 문항에 대해 <그림 27>이 보여주듯이 68%의 응답자들이 많이 있거나 어느 정도 있다고 응답하여 현재는 기부에 참여하지 못해도 앞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면 기부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동일한 문항에 대해 작년의 결과인 65.5%와 비교해 본다면 장차 기부의향의 비율이 약간 증가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25> 자선적기부하지 않는 이유



<그림 26> 기부를 하지 않는 주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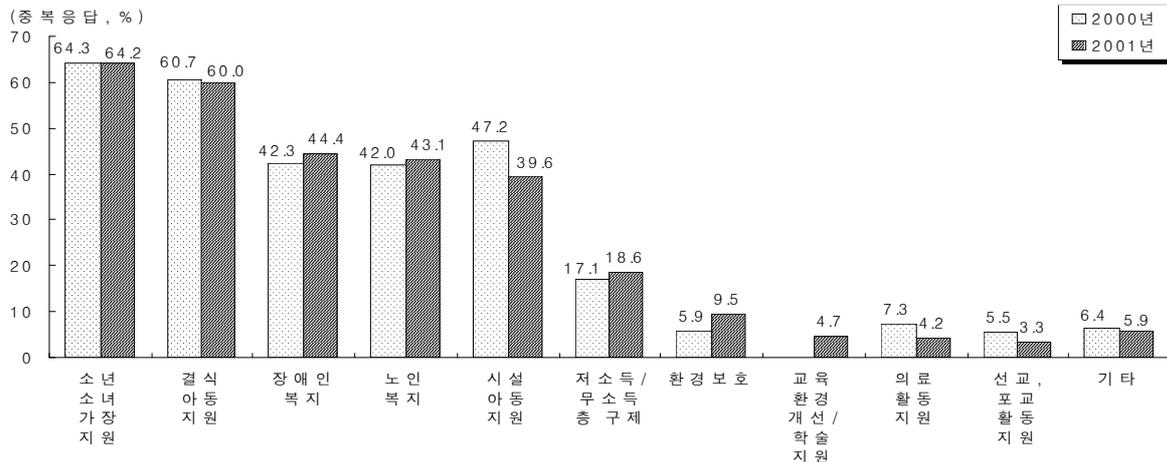
<그림 27> 기부참여의향

(12) 자선적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분야

일반적으로 한국인은 기부금이 어떤 분야에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기부참여자와 비참여자가 함께 응답한 기부금 사용 용도에 관한 문항은 우선 기부금이 가장 우선적으로 쓰여지기를 원하는 분야나 활동 영역을 조사하였다. 응답자들은 우선 순위별로 세 가지 영역을 제시하였다. <그림 28>은 응답자가 복수로 응답한 세 가지 영역을 합해서 보여주고 있다. 우선 소년소녀가장지원 분야와 결식아동지원 분야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60% 이상의 선택으로 기부자들의 기부금이 우선적으로 사용되기를 희망하는 분야이다. 그 다음 범주도 사회복지영역인데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그리고 시설아동에 대한 지원이 모두 40%대의 선택을 보여주고 있다. 상위 다섯 분야를 제외하고는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정도가 약한데 교육, 환경, 의료, 선교 분야가 이에 속한다.

이러한 패턴은 기부금이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분야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작년과 유사하게 아동복지관련 3대 영역인 '소년소녀가장지원', '결식아동지원', 그리고

고 시설아동지원이 가장 빈번하게 선택되었으며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분야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정심에서 기부하는 한국인의 기부 이유와도 관련성이 있으며,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는 전통적인 관행과 특히 아동이나 유아를 불쌍히 여기는 한국인의 전통적인 사회적 습관이 잘 드러나 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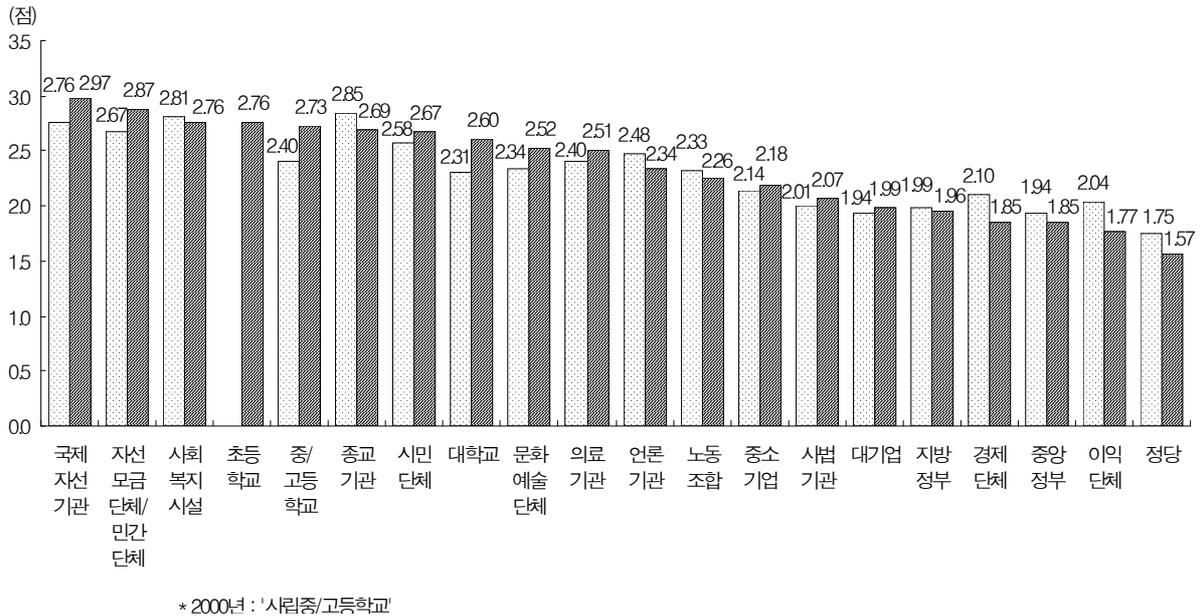


<그림 28> 자선/기부금 사용 희망 분야

(13) 단체에 대한 신뢰도

기부와 자선에 대한 기존의 조사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일반 성인들이 다양한 기관이나 비영리조직에 대해 가지는 태도나 신뢰도가 그 기관에 대한 자선적 기부행동이나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Independent Sector 1999). 금번 기부조사에서도 작년에 이어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다양한 조직이나 기관에 대해 가지는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공공조직이나 영리조직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비영리조직에 대한 신뢰 정도를 상대적으로 조사하였다.

아래의 <그림 29>는 각 기관의 신뢰지수를 4점 척도로 표시하고 있다. 전체 20개 기관 가운데 신뢰점수가 가장 높은 순서로 상위 5개 기관은 국제자선기관(2.97), 자선모금단체(2.87), 사회복지시설/단체(2.76), 초·중·고등학교(2.73), 그리고 종교기관(2.6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신뢰점수가 가장 낮은 하위 5개 기관은 정당(1.57), 이익단체(1.77), 중앙정부(1.85), 경제단체(1.85), 그리고 지방정부(1.96) 순이다. 신뢰도 상위 5개 기관과 하위 5개 기관의 범주는 거의 작년과 비슷하며 언론기관을 중간으로 하여 모든 정부영역과 시장영역은 언론기관보다 신뢰도가 낮은 반면, 모든 비영리조직은 언론기관보다 신뢰도가 높다. 특히 신뢰도가 높은 상위 5개 기관은 자선적 기부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조직들이며, 사람들에게 의해 기부처로 선정된 비율이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비율에서도 가장 높은 기관이다. 이는 기관의 신뢰도와 기부의 수혜여부 사이의 예사롭지 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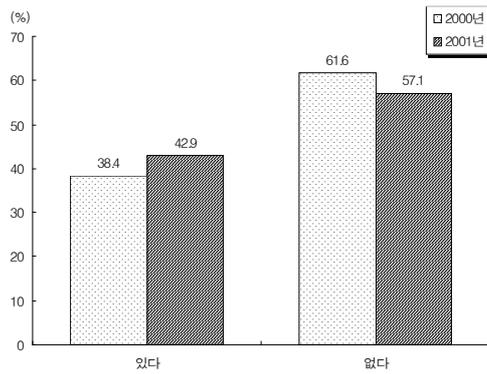


<그림 29> 시설/기관/단체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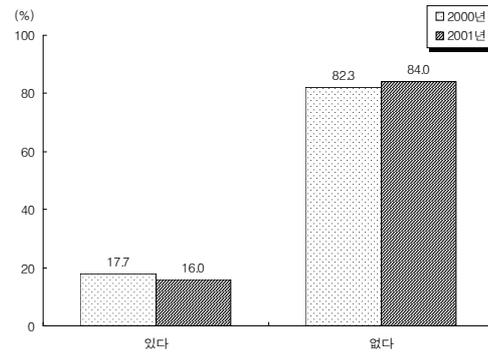
(14) 자원봉사 참여의 경험

기부금과 더불어 비영리조직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민간자원은 자원봉사이다. 기부가 돈이나 물품을 헌납하는 것이라면 자원봉사는 노동이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것이다.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올해의 설문에서는 자원봉사에 관한 문항은 가능하면 간단하게 줄이려 하였다. 자원봉사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은 일생을 통해서 적어도 한번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가의 여부와 2001년 한해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얼마나 참여했는가의 여부이다. 자원봉사에 대한 자료분석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앞서 살펴본 금전적인 기부행위(48%)에 비해 자원봉사에 대한 일반 성인들의 참여율(16%)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아래의 <그림 30>을 보면 작년의 조사에서는 평생동안 38.4%의 응답자만이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했으나, 올해의 조사에서는 42.9%로 늘어났으며, 반대로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2000년도 61.6%에서 2001년도에는 57.1%로 줄어들어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험자의 비율은 약간 늘어났다. 하지만 2001년 일반시민의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율은 기부행위 참여율에 비해 여전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이 보여주듯이 자원봉사에 참여한 적이 없는 응답자가 2000년도에는 82.3%였으나 2001년도에는 84%로 약간 증가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반대로 17.7%에서 16%로 약간 줄어들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자원봉사 참여율의 변동은 오차 범위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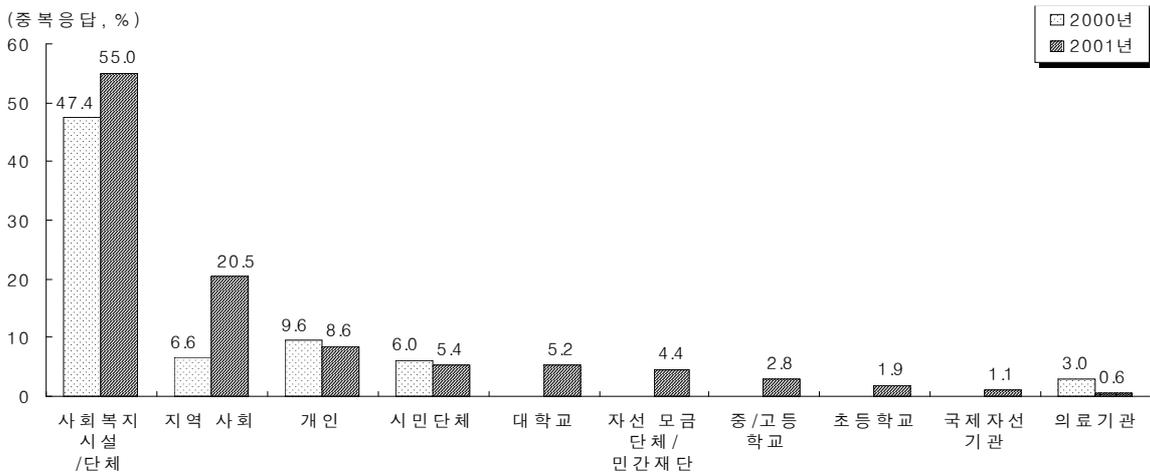
<그림 30>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



<그림 31>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

(15) 자원봉사 활동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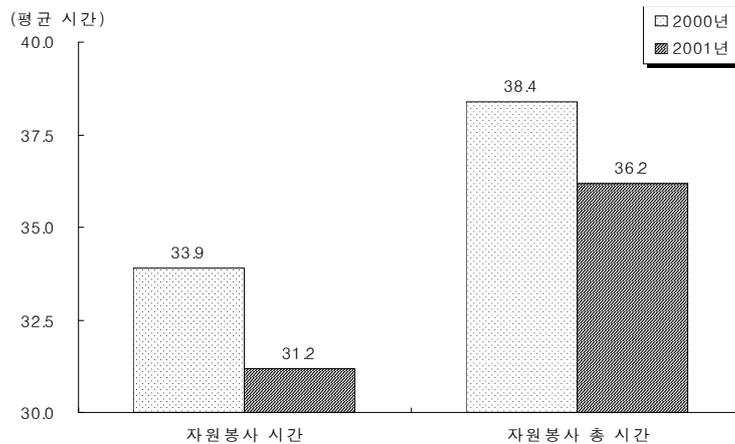
사람들은 어디에서 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가? 아래의 <그림 32>에서와 같이 자원봉사활동 장소를 2000년과 2001년의 경우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2000년에는 중복 응답을 포함해서 전체 사례수 179건 가운데 47.4%가 복지시설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였으나, 2001년에는 전체 사례수 163건 가운데 55%가 복지시설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전반적인 자원봉사 활동 참여자의 비율은 줄어들었지만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에서 자원봉사한 비율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어서 흥미롭다. 그 외 지역사회에 대한 자원봉사 참여는 2000년 6.6%에서 2001년 20.5%로 가장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개인이나 시민단체의 경우 각각 2000년 9.6%, 6.0%에서 2001년 8.6%, 5.4%로 조금씩 낮게 나타났으며 의료기관의 경우도 2000년 3.0%에서 2001년에는 0.6%로 낮아졌다. 2001년의 경우 대학교(5.2%), 자선모금단체/민간단체(4.4%), 중/고등학교(2.8%), 초등학교(1.9%), 국제자선기관(1.1%)에서 자원봉사한 비율은 미미하다.



<그림 32> 자원봉사활동 장소

(16) 자원봉사활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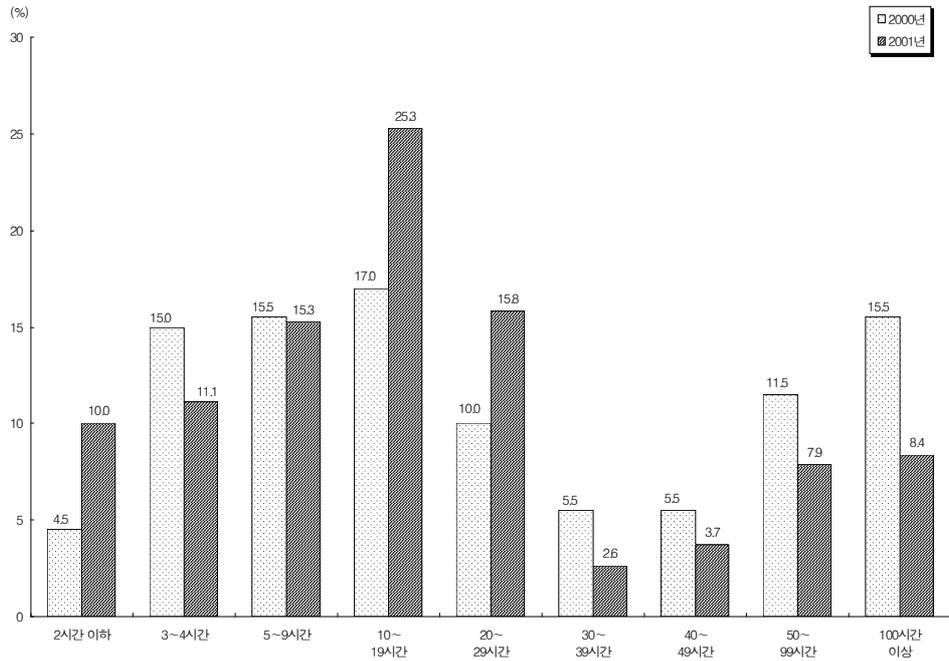
2001년 한국인의 평균적인 자원봉사 시간은 5.81시간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원봉사 경험자의 자원봉사 사례별 평균 봉사시간이나 1인당 연간 총 자원봉사시간 모두 그 전해와 비교해서 약간씩(8%와 6%) 줄어들었다. 2000년 한해동안 사례당 자원봉사활동의 평균은 33.89시간인 반면, 2001년은 31.2시간으로 2.7시간(8%) 줄어들었다. 한편 여러 종류의 자원봉사장소를 모두 합해서 1인당 평균적인 자원봉사 총시간을 조사했는데 <그림 33>에서와 같이 2000년에는 38.40시간이었으나 2001년에는 36.2시간으로 역시 2.2시간(6%)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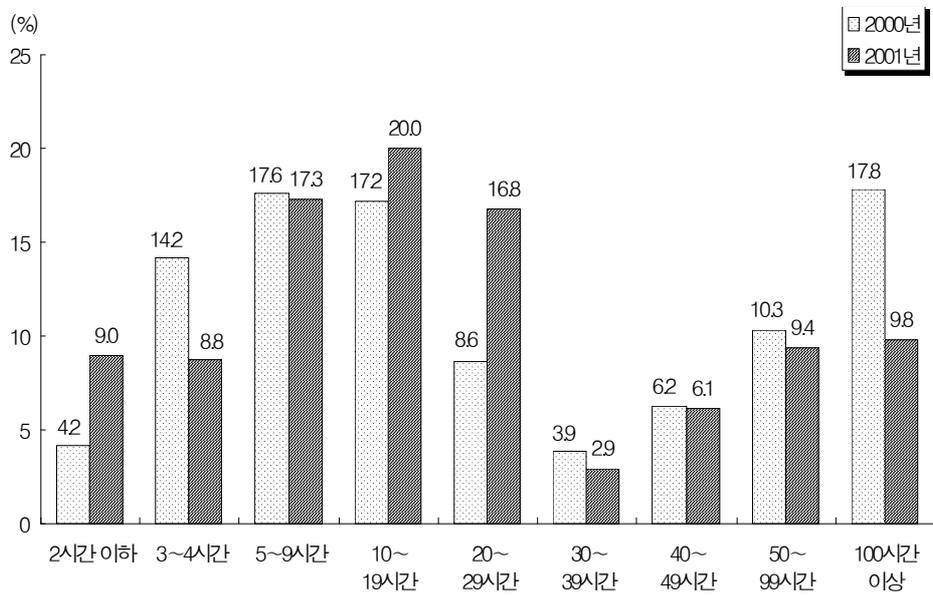
<그림 33> 자원봉사 총시간

한편 각 개인들이 하나의 자원봉사처당 자원봉사를 한 시간을 구분하면 <그림 34>가 보여주듯이 2000년의 경우 평균적으로 10시간~19시간 동안 자원봉사를 했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비율(17%)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비율(25.3%)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기관당 2시간 이하의 자원봉사를 한 응답자는 2000에는 4.5%였던 것이 2001년에는 10.0%로 늘어났으며, 한 개인이 일년동안 자원봉사를 수행한 모든 기관을 다 합해서 시간을 계산해보면,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한 응답자들이 2000년도에는 17.8%로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2001년도에는 9.8%로 대폭 낮아졌다(그림 35). 한마디로 한국인의 자원봉사 참여율과 시간이 모두 약간씩 줄어든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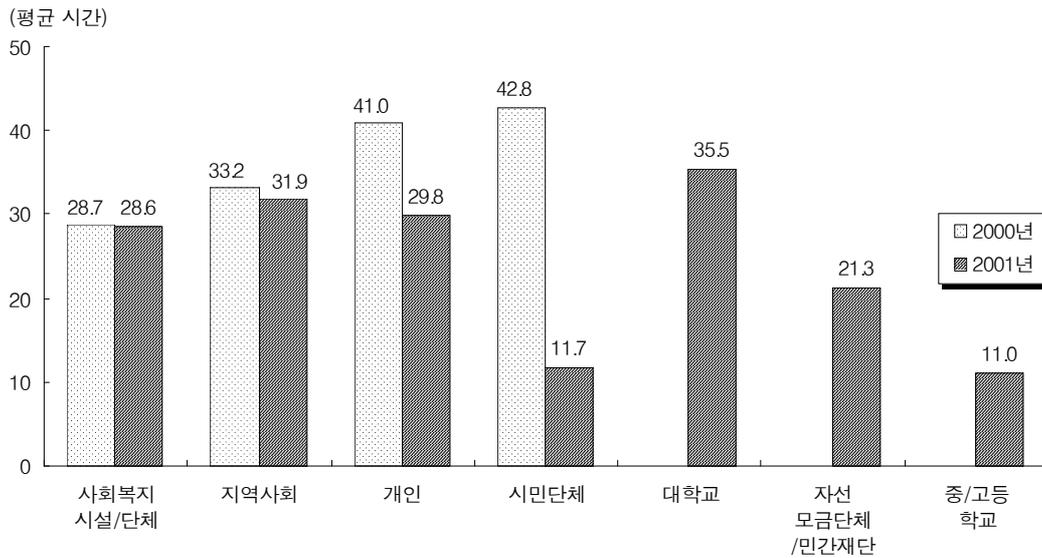
한편 자원봉사처별 평균적인 활동시간은 <그림 36>과 같이 2000년의 경우 시민단체(42.8시간), 개인(41.0시간), 지역사회(33.2시간) 순으로 자원봉사시간이 많았으나, 2001년의 경우는 대학교(35.5시간), 지역사회(31.9시간), 개인(29.8시간) 순으로 약간 변화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단체에 대한 평균 자원봉사시간이 급격히 줄어든 반면, 대학교에 대한 자원봉사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시설단체에서의 평균 봉사시간은 2000년 28.7시간, 2001년 28.6시간으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4> 자원봉사활동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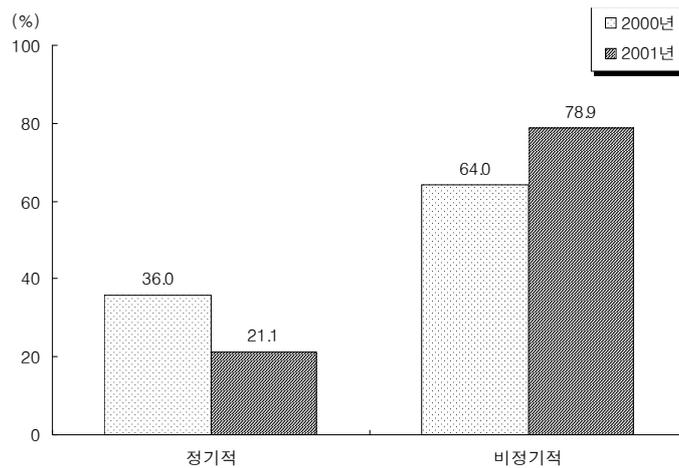


<그림 35> 자원봉사활동 총시간



<그림 36> 자원봉사처별 활동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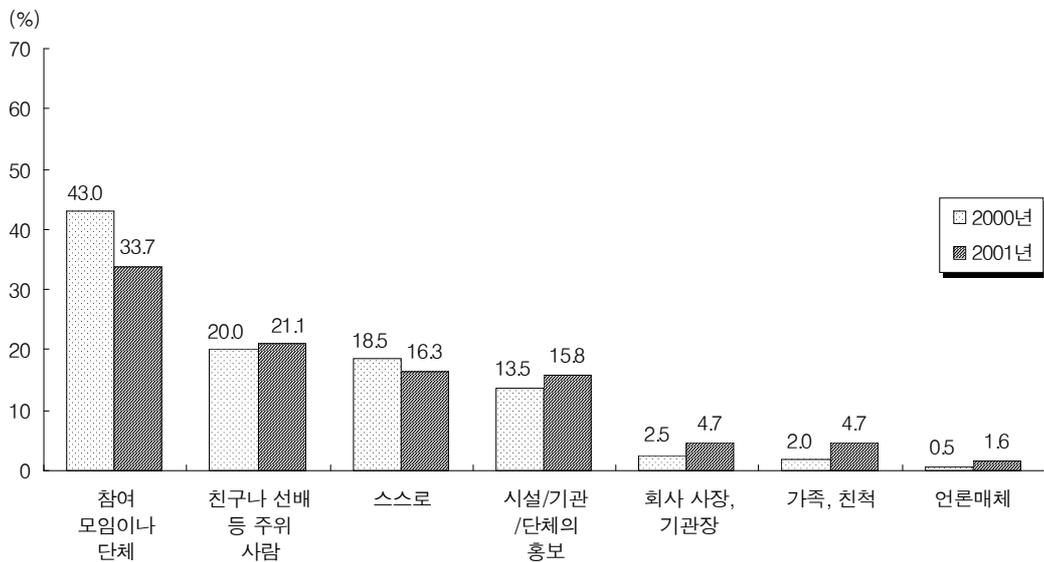
우리나라 성인 자원봉사자들은 얼마나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의 자원봉사는 비정기적인가? 조사결과는 <그림 37>이 보여주듯이 2000년도에는 정기적인 봉사자는 36%, 비정기적인 봉사자가 64%로 나타났지만, 2001년도에는 정기적인 봉사자가 21.1%로 많이 줄어들었고, 비정기적인 봉사자는 78.9%로 많이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자선적 기부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며, 작년과 비교한다면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7> 자원봉사활동 정기성 여부

(17) 자원봉사처의 인지경로

한국의 성인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자원봉사처를 알게되었는가? 자원봉사를 한 사람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일곱 가지의 접촉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빈번히 지적된 접촉경로는 <그림 38>과 같이 “본인들이 참여하는 모임이나 단체를 통해서” 자원봉사기관을 소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에는 이 항목에 무려 43%의 응답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그 전보다는 다소 낮아졌지만 33.7%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로 빈도가 높은 접촉경로는 친구나 선배 등 주위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경우이다(2000년 20.0%, 2001년 21.1%). 자신이 스스로 찾았거나(2000년 18.5%, 2001년 16.3%) 시설이나 기관의 홍보를 접하고 안 경우(2000년 13.5%, 2001년 15.8)도 매년 낮지 않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를 통해서나, 가족이나 친지를 통해서,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접촉한 경우는 두 해에 걸쳐서 여전히 그 빈도가 높지 않다.



<그림 38> 자원봉사 활동처 인지 경로

지금까지 조사결과의 분석에서는 모두 17가지의 주요 항목에 대해 빈도를 중심으로 자선적 기부 활동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조사결과를 요약하고 주요 발견의 의미와 함축성을 논의한다.

5. 맺음말

올해 실시한 기부지수 조사는 2001년에 이어서 두 번째 실시된 전국적인 규모의 서베이 조사로서 한국인의 자선적 기부와 자원봉사의 실태에 대한 신뢰할 만한 통계적 자료의 필요성 때문에 계획되고 수행되었다. 본 조사를 위해 연구팀에서는 선진 여러 나라의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한 조사의 현황과 작년에 갤럽에 의뢰해서 실시한 첫 번째 조사의 경험에 근거해서 우리의 상황에 적절하면서도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조사도구를 작성하였다.

올해의 기부조사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개인대상의 조사로서, 갤럽의 표준조사진행방식으로 가구 방문 면접조사를 채택하였다. 작년의 조사에서 넓은 의미의 기부행동에 포함하였던 종교적인 목적의 기부를 올해의 기부금 조사에서는 분리하고 또 주요 문항에서도 제외했으며, 금전적 기부금과 자원봉사활동을 함께 조사하였다. 기부에 주요 초점이 있는 본 조사의 특성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문항은 최소한도로 줄이고 표본은 작년과 비슷하게 1,021사례로 하였다. 올해의 서베이 조사에서 기술적 통계를 중심으로 나타난 한국인의 자선적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의 현황과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1년 한해동안 한국인 가운데 자선적 기부에 참여한 사람은 48%이고 이는 작년의 57%와 비교해서 9% 줄어든 수치이다. 한편 자원봉사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은 기부 참여자의 3분의 1 수준인 전체 국민의 16%에 불과한데, 이 수치는 작년의 17.7%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말하자면 한국 성인의 절반 정도는 작년에 적어도 한번 이상 자선적 기부를 한 경험이 있지만, 자원봉사를 경험한 사람은 5명 가운데 2명에도 미치고 못하고 있다.

둘째, 한국인들이 가장 빈번히 기부하는 곳은 자선모금단체 및 민간재단, 언론기관, 그리고 복지단체나 시설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사립교육기관에 대한 기부는 활발하지 않으며, 문화예술단체나 의료기관에 대한 기부도 미약하다. 2001년 한해동안 기부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기부의 방법은 ARS전화를 이용하는 방법과 기부를 원하는 시설이나 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동이체의 방법이나 가두모금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은 여전히 소수이고, 다른 나라에서 흔히 사용되는 자선이벤트나 바자회 참석, 그리고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전환하는 기부의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셋째, 20세 이상 한국 성인 전체로 본다면 작년 한해 동안 1인당 평균 5만원의 금전을 기부했으며, 기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1사례당 평균 8만9천원을, 1인당 총 10만8천원을 기부하였다. 이러한 기부금액은 2000년의 1사례당 평균 7만4천원, 1인당 총 9만 8천원과 비교해서 약간 늘어난 수치이다. 한국성인 전체로 본다면 작년 한해 동안 1인당 평균 5.81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했으며, 자원봉사경험이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1사례당 평균 31.2시간, 1인당 총 36.2시간을 봉사하였는데 이러한 수치는 각각 2000년의 1사례당 평균 33.9시간, 1인당 평균 38.4시간에 비해 약간 줄어든 수치이다.

넷째, 한국인의 기부행위와 자원봉사활동은 비정기적인 경향이 강하다. 정기적인 기부자는 전체 인구의 18.2%이며 정기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자는 21.1%이다. 정기적인 후원자 개발을 목표로 하는 많은 비영리조직의 입장에서는 기부자든 자원봉사자든 비정기적인 기여자를 어떻게 정기적인 기여자로 만들 것인가에 더욱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한국인이 기부 동기는 두해 연속적으로 어렵고 불쌍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가장 크다. 나아가 동기나 이유로써 그 강도는 약하지만 사회개선이나 도덕적 의무와 책임감으로 기부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흔히 지적된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여섯째, 기부자들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약자이자 소외계층을 위해 자신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기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3대 수혜 영역은 불우아동지원, 장애인복지, 그리고 노인복지이다. 이 가운데 특별히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그리고 시설아동을 금전적으로 도우려는 의지가 가장 강하고, 자선적 기부금이 이들에게 많이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돈을 기부하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자신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만 기부처를 불신하는 것도 개인이 기부를 하지 않는 주요 이유에 속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된 한국인의 기부와 자원봉사 행동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작년과 비교해서 특히 주목할 점은, 전체 시민 가운데 기부참여자의 비율은 약간 줄어든 반면, 기부자들이 낸 기부금의 액수는 사례별로, 그리고 개인별로 약간씩 늘어났다. 올해의 기부지수 조사에서 나타난 또 다른 특이점은 자선단체나 민간재단이 한국인이 가장 자주 기부하는 기부처로 급부상한 점이고, 언론기관에 대한 기부는 작년과 똑같은 비율로 선호되고 있으며, 개인에 대한 직접 기부는 현저히 줄었다는 점이다.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기부환경 가운데 기부금의 행정비용 사용한도에 대한 기부자의 의견도 관심이 끄는 항목이다. 한국의 기부자들은 자신들이 기부한 금액 가운데 15%에서 20% 정도를 기부금 모집에 따른 행정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올해 시민사회연대회의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행정비용 2% 사용한도를 20%로 상향조정해서 국회에 법률 개정을 요청한 수치와도 비슷한 결과여서 주목된다.

본 조사연구가 이번에 파악한 기부와 자원봉사에 관한 실태는 한국인의 자원활동(voluntary activities)과 자선적 기부활동(charitable giving)에 관한 주요 통계를 2년 연속으로 보여준다는 것에 일차적인 의미가 있다. 하지만 기부금에 관한 서베이 조사의 결과는 재정의 많은 부분을 민간자원에 의존하는 비영리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 항상 우호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정기적인 기부자가 많지 않고 기부처를 불신하는 것이 여전한 현실에서 잠재적 기부자의 인식과 행동을 극적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노력과 더불어 획기적인 기부촉진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표본의 선정 및 질문도구의 개발은 장기적인 조사를 계획하는 본 연구팀이 당연히 감당해야 할 부분이다.

참고문헌

강철희, 1998. "후원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일반적 특징과 그들의 후원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5:1-30.

강철희, 정기원, 황창순, 2001. "사회복지부문의 민간복지재원 규모 파악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4:1-29.

김준기, 2000.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2000. 12월.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0. 자선 및 기부활동에 관한 조사.

정무성, 2000. "비영리조직의 재정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 2000년 7월 19일 바람직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관한 시민운동지원기금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논문.

황창순(1996), "공익법인 규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동서연구 제8권: 5-24.

황창순(1999), "기업과 사회복지: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의 관점." 순천향사회과학연구. 4권2호: 211-224.

황창순, 강철희(2002), "개인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자선적 기부노력을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2:21-45.

AAFRC TRUST FOR PHILANTHROPY, 1999. Giving USA: The Annual Report on Philanthropy for the Year 1998.

AAFRC TRUST FOR PHILANTHROPY, 2000. Giving USA Update: Recent Findings on Charitable Giving. A Newsletter, Issue 2, 2000.

Asia Pacific Philanthropy Consortium, 2000. Resource Mobilization Project.

Brown, Eleanor, and Dwight Burlingame, 2001. "Introduction, Symposium: Methodology in Surveying Giving and Volunteering Behavior"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0:480-482.

Hall, Michael H., 2001. "Measurement Issues in Surveys of Giving and Volunteering and Strategies Applied in the Design of Canada's National Survey of Giving, Volunteering and Participating.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0:515-526.

Havens, John J., Paul G. Schervish, 2001. "The Methods and Metrics of the Boston Area Diary Study"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0:527-550.

Independent Sector, 1999. Giving and Volunteering in the United States. Findings from a National Survey 1999 edition.

Individual Giving and Volunteering in Britain. 7th Edition. 1994. Charities Aids Foundation.

Jas, Pauline, 2000. "Individual Giving: What? Who? How? - But especially: Why? a paper presented at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ird sector Research, Dublin, Ireland, July 5-8, 2000.

Jung, Ku-Hyun, Tae-Kyu Park, and Chang-Soon Hwang, 1999. Philanthropy and Law in Asia: Korea. San Francisco: Jossey-Bass.

Kennedy, John M. and Brian Vargus, 2001. "Challenges in Survey Research and Their Implications for Philanthropic Studies Research"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0:483-494.

Kirsch, Arthur D., Michael T. McCormack, and Susan K. E. Saxon-Harrold, 2001. "Evaluation of Differences in Giving and Volunteering Data Collected by In-Home and Telephone Interviewing"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0:495-504.

O'Neill, Michael, 2001. "Research on Giving and Volunteering: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0:505-514.

Rooney, Patrick M., Kathryn S. Steinberg, and Paul G. Schervish, 2001. "A Methodological Comparison of Giving Surveys: Indiana as a Test Case"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0:551-568.

Statistics Canada, 1998. Survey of Volunteering, Giving, and Participation. Questionnaire.